문화여성

문화매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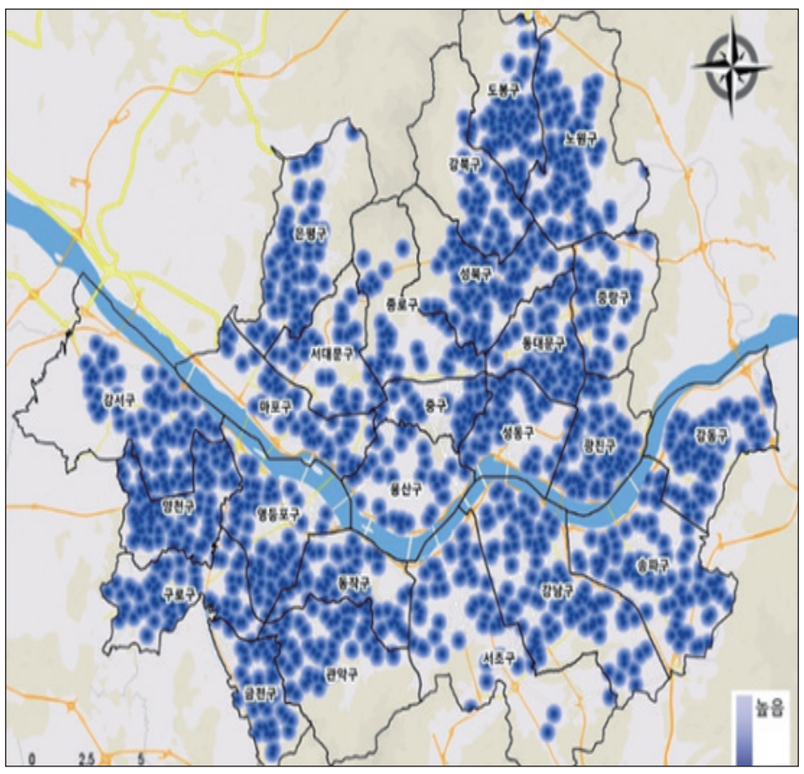
복합쇼핑 문화공간
크로앙스
저렴한 임대료 임대문의 TEL:2067-8000

제 1017호 2021년 1월 27일 수요일 www.wawa105sujin.com 대표전화 1899-9659

서울시, 민식이법 1년만에…고강도 대책 가동결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0명'

서울형 안전속도 532 프로젝트 추진…스쿨존 제한속도 20km/h까지 낮춰

서울시가 '민식이법' 시행 1년 만에 학교 앞 불법노상 주차를 전면 폐지하고 시 전역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이전과 다른 다양한 고강도 대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매년 발생해 오던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사망사고를 제로로 만들었다.서울특별시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사망사고는 '19년 2건 이었으나 지난 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건수 역시 '19년 114건에서 지난해 62건으로 45% 감소했다.시는'민식이법' 시행 한 달 전인 지난 해 2월'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을 수립해, 서울시 모든 초등학교 앞에서 불법으로 운영되는 노상주차장 417면 전체를 전면폐지하면서 동시에 절대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단속했고 금년 상반기까지 과속단속카메라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100% 설치하기 위해 지난해만 이미 학교 3곳 중 2곳에서 설치해 24시간 단속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왔다.교통사고 분석 업무담당 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28%는 키가 작은 아이들이 도로변 불법주정차 차량 등에 가려 운전자들이 빨리 발견하지 못해 발생하고 있다.서울시는 그간 주택가나 상가 주변 주차공간이 크게 부족하다보니 불법임에도 노상주차장을 바로 폐지하지 못해왔으나, '민식이법' 시행 등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최고에 이른 만큼 학교 앞 주통학로 불법 노상주차장 전체 48개소 417면을 완전히 삭선 해 어떤 경우라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는 있을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당초 불법노상주차장 폐지사업을 계획하면서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었으나, 경찰과 자치구가 충분한 사전 예고 기간을 두고 적극적인 현장 안내를 실시하면서 차질 없이 진행됐다.뿐만 아니라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심각성과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면서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도 함께 이뤄졌다.이에 따라 성북구 대광초 등 38면, 동대문구 이문초 등 110면, 양천구 으뜸어린이집 등 16면은 지난 해 상반기 중에 이미 삭선을 완료했으며 금년 1월 3일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강남구 대현초 62면 등에 대해서도 즉시 폐지가 완료됐다.삭선한 불법 노상주차장에는 '황색복선'을 설치하고 디자인 포장 등 도로 정비를 시행하고 있다.특히 황색 복선은 불법 주정차 단속 가능 지역임을 알리고 있어 이전처럼 다시 차량들의 불법 주정차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시인성을 높였고 단속도 강화하면서 어린이 안전 보호를 위한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이와 함께 지난 8월부터 초등학교 정문 및 후문 등이 위치한 주통학로 전체 도로변에도 '황색복선'을 설치해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운영하고 있다.또한 스마트폰 '서울스마트불편신고'와 '행안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신고제를 활성화 하며 월143건 이상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단속카메라도 별도로 30대를 추가 설치해 시구 합동단속반 약 250명을 상시 운영하는 등 지난 한 해 동안만 18만 4천건의 불법주정차를 단속했다.특히 금년 5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현 2배에서 3배까지 확대되는 만큼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주정차를 절대로 안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자리 잡힐 때까지 단속을 보다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주택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공영주차장 공급을 확대해 도로에 차량이 정차하는 일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그간 과속단속카메라 업무는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찰에서 담당했는데, 예산부족 등으로 매년 서울시 전체 도로에 50대 내외를 설치했고 그러다보니 2019년까지 서울시 초등학교 606개소 중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68개소 85대로 11%에 불과했다.서울시는 민식이법 개정 훨씬 전인 2018년부터 모든 초등학교에 과속단속카메라를 매년 확대 설치할 계획을 만들어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경찰-자치구와 협의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고 지난해 민식이법 개정으로 국비까지 확보되면서 시 전역을 대상으로 빠르게 설치를 진행할 수 있었다.그 결과 지난 해에만 초등학교 총 417개교를 포함한 총 484대를 설치해 초등학교 66%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했으며 장비검수 등을 마치고 금년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을 운행하는 차들은 제한속도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아울러 올해 상반기까지 아직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189개교에도 모두 단속카메라를 도입해 100% 설치를 앞두고 있으며 사고위험이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앞 도로에도 적극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현재 전국적으로 간선도로는 50km/h, 이면도로는 30km/h로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을 시행중에 있으나, 서울시는 이에 더해 어린이보호구역 주통학로가 도로폭이 좁아 보도를 설치하기 어려운 이면도로인 경우에는 제한속도를 20km/h까지 낮추는 '서울형 스쿨존 532'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지난해 중랑구 신현초, 강서구 가양초, 서대문구 대현초, 은평구 신사초, 구로구 신도림초, 동구로초 등 33개소에 우선적으로 시행됐으며 차량 감속을 유도하기 위해 도로 전체를 디자인블록으로 포장하거나 구간마다 방지턱을 적극 설치했다.'서울형 스쿨존 532' 사업은 보도를 정비하기 어려운 주택가 골목길 등에서는 차량진입을 최대한 어렵게 해 어린이가 도로 통행의 주인이 되도록 추진되고 있다.아직 사업시행 초기로 차량속도를 줄이는 방법이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해외 사례 연구, 전문가 자문, 시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총동원해 다양한 형태의 '서울형 스쿨존 532'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은 현재 2020년 말 기준 1,751개소에 이르며 어린이의 보행이 주로 이뤄지는 초등학교는 100%,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80% 이상 지정되며 운영해 왔다.또한 지난 해 처음으로 학원이 몰려있는 강남구 대치동과 노원구 중계동 은행사거리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노면표시, 표지판 등을 정비하면서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지난해에만 학원가 집중 지정을 포함해 총 92개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신규로 지정했다.그동안은 공공기관 등 주요 시설의 신청을 우선적으로 지정해왔으며 학원 지역은 어린이 통행량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학원이 직접 신청에 나서는 경우가 적어 현실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어려웠다.운전자와 보행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시인성도 크게 강화됐다.지난 해 3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개정 이후, 사망사고 발생 시 운전자 과실에 따라 최하 3년의 징역형이 적용되는 만큼 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어린이 보호구역 시종점부 414개소에 발광형 LED표지판을 설치해 야간에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했고 횡단보도 대기 공간 125개소에는 옐로카펫을 설치했다.또한 새롭게 신설되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42개소에 신호등을 설치하고 동시에 멀리서도 색상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노란색으로 도색했다.시는 내년까지 사망사고 제로를 넘어 중상사고까지 발생하지 않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만들기 위해 현재 지난해 발생한 사고원인을 철저히 진단하고 개선 효과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을 시행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및 사업을 연구, 개발할 예정이다.뿐만 아니라 개학 전까지 서울특별시경찰청 및 25개 자치구와 긴밀히 협조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과속, 불법 주정차 등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르신,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 공간으로 조성해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통학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칼럼] 외상이라면소도 잡아먹는다

지난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카드매출 감소는 연말호황을 기대했던 대목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추락을 끝을 모르고 떨어졌다. 안 쓴 게 아니라 없어서 못쓴 것이다.

신용의 끝자락에 매달려 있던 층들과 불안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전년대비 반 토막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제조업까지 불황이 확산되면서 우려했던 저수지붕괴가 시작된 것이다.

카드자체가 신용을 담보로 먼저 사고 나중 결재하는 외상이나 다름없는 것인데 손에 외상장부를 들고 텔레비전만 켜면 홈쇼핑에 인터넷만 들어가면 해외직구까지 온갖 쇼핑아 다 되는 세상이다 보니 절제되지 않은 소비, 충동구매는 당연히 제동장치 없이 빚만 늘어가는 추세다. 명분은 소비활성화로 경제지수가 상승될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론 부채증가의 원인이 된다.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속담이 적용되는 건 이 뿐만 아니다.2020년 이맘때 자영업자들을 구제하겠다면 대출을 푼 금액이 상환기간이 도래하자 예상했던 속수무책 상황이 현실로 나타났다.

당장 급한 불을 불로 끄는 형국인데 빚이 빚을 낳는 미봉책이었고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386조 원으로 2019년 대비 47조 원이나 늘었다. 최근 정부가 자영업자대상 대출을 1,000만원씩 추가로 풀겠다는 발표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아예 막장 정책이라는 비난을 퍼부었다. 기존에 빚도 갚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로 내준다는 것은 못 받을 걸 알면서도 또 지급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 돈으로 회생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이미 죽은 자식 부랄 만지기다. 뭐가 급한지 뭐가 중요한지도 정확히 파악 못한 상태에서 현실에 맞는 정책보다는 책상머리에 앉아 누런 잠바입고 방송국 카메라 앞에 폼만 잡는다고 될 일은 아니었다. 다 맞다 치자. 폐업 또는 영업 기반이 무너진 다음에 1,000만원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다. 더욱 가관인 것은 선거 때가 다가오자 뒷일이야 어찌되건 말건 장밋빛 공약이 설레발을 친다. 코로나19 초창기 때 치러진 선거에서는 소독약통 짊어지고 너도나도 거리마다 설치며 카메라 앞에서 쇼를 벌인 적이 있었다. 물론 당선되고 나서 그럴 일도 없어졌지만 최근 여야가 앞 다투어 바닥 표를 긁어모으려 작정한 모양새다. 일단 마구 퍼주고 나면 그다음 누가 갚을 것인가. 다 죽어가던 농부한테 농번기에 볍씨를 주었어야지 벼하나 없이 논바닥에 주저앉은 농민에게 겉보리 서 말을 저금리로 줄테니 이듬해 갚으라는 것과 같다. 먼저 더불어 민주당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전에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법제정과 시행령에 예산편성까지 속전속결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와 당정이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누구에게 뭘 어떤 식으로 얼마다 도와주라는 것인가. 영업종목과 각자의 환경이 천차만별인데 줄자로 재도 시원찮을 판에 막대자로 재어 돈을 풀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꺼내든 포퓰리즘 카드라며 지난해 4월 총선 때 풀었던 재난지원금보다 몇 십 배 더 심하다고 비판했다.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에 백성의 가난이 국가의 가난과 직결된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려될 뿐이다. 최소 수 십 조원으로 추산되는 예산마련이 누구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며 못 갚을 경우 누가 갚을 것 인지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정부방침에 발끈하는 것은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자신이 낸 보험료로 만든 고용보험기금에서 실업급여를 받지만 자영업자는 국민모두가 낸 세금으로 지원금을 받으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자칫 국민들 간에 민민 갈등의 기폭제도 될 수 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이를 맡은 중앙은행 돈도 국민 부담이고 결국은 정부가 져야 하므로 정부이 구성원인 국민 중 자영업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부담이라는 것이다.이래서 가난은나라도 못 구한다했던 것이다. 나름 머리 좋은 사람들이 궁여지책으로 세운 정책이니 다 맞다 치자 실물경제를 얼마나 아는지 시장바닥을 돌아보고 논하는 것인지 부터 물어보자. 한집 건너 문을 닫았으니 무너진 시장이 다시 활성화를 찾으려면 지원금 대출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판인지 제때 월급 받는 자들이 뭘, 얼마나 알고 이런 겉 발린 정책을 세우는 것인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분야에는 기반이라는 것이 있다. 농사도 그렇겠지만 길거리 노점상도 재료구입부터 붕어빵 굽는 가스통까지 준비와 고객을 맞이하기 위한 청소까지 해놔야 손님이 올까말까 하는 것이다. 목 좋은 점포선정부터 인테리어 사업자 등록에 단골확보는 물론 홍보도 해야 하는 과정이 있다. 전 세계 특정 국가를 찍어 자국정책의 합리화를 끼워 맞추는가하면 실책에 대해서는 사과나 책임질 사람이 없다. 그러니 임기만 끝나면 줄줄이 철창행이에 국민들만 죽어나는 나라가됐다. 방법이 없을까. 공무원 월급 10%와 국회의원들 세비 절반이라도 거둬서 1년만 희생하면 국민들이 모처럼 수긍하지 않을까. 기존 채무도 못 받은 채무자에게 더 빌려주며 자기돈 마냥 생색내는 것 보다 낫지 않을까. 백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을 하라. 국민들이 알아서 허리띠 졸라매고 뭐라도 해보려한다.지금처럼 재는 주고 나는 왜 안주냐고 대들지 않는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지 모른 체 하는 건지.....

덕암/김균식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세제 혜택 인구 30만 미만 도시 차등 없앤다

허 의원, "소멸 위기 등 지방이 처한 어려움과 지역 간 격차 해소 위한 법안"강조

강원도 등 접경지역과 수도권 인접지역에 다소 불리하게 적용돼왔던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국세감면 혜택을 바로잡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25일 인구 30만 미만의 중소도시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기간 제한을 없애는 한편 접경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우선, ①개정안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데 세제혜택 기간의 제한을 받는 이전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지역에 대해 "30만 이상의 인구 요건"을 추가했다.인구 30만 미만의 중·소도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 혜택 제한을 풀자는 것이다.현행법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최초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하도록 돼 있다.

다만, 수도권 내인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을 비롯해 수도권 밖인 광역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 최초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하도록 돼 있어 이전하는 지역에 따라 세제혜택기간에 차등을 두고 있다.문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은 지역의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구미시, 김해시, 아산시, 원주시, 익산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춘천시, 충주시, 포항시, 당진군,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 및 횡성군의 관할 구역"을 말한다.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수도권과의 연접 여부, 인구 규모 등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그러나 허 의원은 "관계법령 어디에도 이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차등에 관한 시행령도 지난 10년간 개정되지 않아 현재 지방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구 30만 미만인 춘천시를 비롯해, 익산시, 충주시, 당진시, 홍천군, 횡성군, 음성군, 진천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 등은 다른 지방과 마찬가지로 최초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게 돼 기업 유치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또한 ②개정안은 접경지역에 2023년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등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최초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도록 했다.'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접경지역 내 기업에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낙후된 접경지역에 기업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유인이 부족한 상황이다.허영 의원은 "소멸 위기 등을 겪고 있는 지방이 처한 어려움과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역 간 격차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법안이 갖는 의미와 통과 시급성을 강조했다.한편 개정안에는 허 의원을 비롯해 김병주, 김수흥, 박상혁, 어기구, 유상범, 유정주, 이철규, 임호선, 한기호, 한병도 의원 등 총 11명이 서명했다.

최광수/기자

김병욱 의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 보장 방안 마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온라인쇼핑시장의 거래액이 25.2조에서 145조 규모로 매년 급성장함과 동시에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의 폭발적 증가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걸쳐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소비자와 플랫폼 입점 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거래 의존도 또한 심화되며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가 최근 대표적 플랫폼 업종에 한해 입점업체를 파악한 결과 180만개로 추산하는 가운데 현행법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비한 상태라 각종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온라인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효과적인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다.이에 김병욱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계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절차규정을 마련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예방 및 분쟁당사자 간의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담은 제정법'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골자는 온라인 플랫폼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등 용어 정의 적용범위는 매출액 및 중개거래금액이 100억, 1,000억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결정 표준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들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도입 법률 위반시 위반행위 조사 및 서면실태조사 실시와 공표 등을 담고 있다.또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서비스업자들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장치를 만들었다.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기본적으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계약서에는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 광고비 주요 산정기준 검색·배열순위를 결정하는 기본 원칙 수수료 또는 광고비가 검색·배열순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명시해야 한다.이와 함께 온라인플랫폼 산업 분야의 특성에 맞도록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실효성을 높였다.검색·배열순위의 조작을 통한 이용사업자 차별행위 특정 결제방식 강제행위 중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회전도 가능하도록 정산대금 지급거부 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산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을 포함했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불공정거래로 논란되었던 사례들이 유형화됨으로 사전 규제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가 방지된다.김병욱 의원은 "국민 생활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많은 문제도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만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법 집행을 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며"이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간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 산업 분야의 문제에 대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특별법 성격의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이어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속도에 비해 관련 법 제정이 늦은 감이 있다 이 법률을 통해 업계 관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전익현 충남도의회 부의장,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근거 마련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다음달 본회의서 최종 의결

충남에서도 하자없는 공동주택 조성을 위한 품질점검단 운영 근거가 마련된다.충남도의회는 전익현 제1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이 조례안은 비전문가인 입주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공동주택 하자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와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품질점검단은 해당 분야 전문가 50명 이내로 구성되며 점검단장은 도지사 지명으로 임명된다.임기는 2년이다.

점검대상은 관련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도지사가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품질점검단은 계단과 복도 등 공유부분과 개인 소유자가 독점 사용하는 전유부분의 시공상태에 대해 자문하고 주요 결함과 하자 발생원인 시정 자문, 법·제도적 개선 권고 기타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게 된다.

전익현 부의장은 "해마다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입주자 안전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조례안 통과를 시작으로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례안은 오는 2월 4일 열리는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편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안전 및 품질에 대한 입주민 요구와 공식적 품질점검 필요성 증가에 따라 경기도 등 공동주택이 대다수인 시·도에선 자율적으로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김원호/기자

충남도의회 안건소위 "혁신도시 후속조치 속도내야"

건설교통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공공기관·기업 이전 등 실질적 성과 내야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25일 건설교통국과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2021년 주요업무보고에서 혁신도시 지정 이후 후속조치의 신속한 이행으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또 더행복한 주택 사업 확대, 건설공사 시 지역업체 도급율 상향, 주민 의견을 사전 반영한 명품도로 건설 등을 요구했다.

이날 지정근 부위원장은 "세종특별시 중심의 행정도시는 완성단계이나 배후도시인 공주시의 발전은 소외된 만큼 도 차원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한편 농촌지역 농막과 도로변 농산물 판매시설을 규정에 맞게 정비해 달라고 강조했다.전익현 위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시·군과 충분한 소통으로 충남지역에 많은 곳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사람 중심 교통정책 수립 시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추진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주문했다.최훈 위원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의 합리적 추진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충남형 더행복한 주택 건설 사업 추진 확대 필요성을 요구했다.김대영 위원은 "지방도와 시·군 도로의 과속방지턱이 설치 기준에 맞지 않아 차량이나 오토바이 교통사고 발생이 잦다"며 도내 전체에 대한 전수 조사와 함께 개선대책을 요청했다.

이계양 위원장은 "국토관리원에 따르면 충남의 건설사고는 97건으로 전체의 4.25%에 불과하지만 사망사고 비율은 10.3%로 전국 2위"며 "큰 사회적 문제인 만큼 현장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위원장은 또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지역간 불균형 심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 해소를 위한 공공기관 및 기업 유치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 사업 추진 시 요청사항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중앙부처와의 적극 대응을 당부했다.한편 안건소위는 이날 전익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김원호/기자

임대료 감면 의무화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추진 발표

강득구 의원, "국회 차원에서 소상공인 상가임차인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 촉구

경기도 안양만안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득구 의원은 25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이재준 고양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등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번 공동기자회견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와 정부의 방역조치로 생존위기에 몰린 상가임차인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 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공동기자회견에 함께한 고양시 이재준시장, 광명시 박승원시장, 구리시 안승남시장, 시흥시 임병택시장, 안산시 윤화섭시장, 안성시 김보라시장, 파주시 최종환시장 등 경기도권 7명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난 해 12월 8일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그동안 경기도권 7명의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강득구 의원실은 임대료 감면 의무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차례 사전협의를 해왔다.이러한 협의 결과로 오늘 공동기자회견을 주최한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상가임차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만 전가하지 않고 상가임대인, 상가임차인, 금융기관, 정부 등이 함께 고통분담해 소상공인 상가임차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물주와 상인들이 상호 공생·상생할 수 있는 상생대타협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율/기자

日지도자들, 식민지지배자 추억 고스란히 남아"

양기대 국회의원, 일본 외무상은 사법압력 중단하고 망언 사죄하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일본 외무상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을 부정하면서 한국 정부 주도의 시정을 요구하는 담화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일본 외무상은 사법압력을 중단하고 '망언'에 대해 사죄하라"고 24일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등 일본 정부 지도자들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일제 강점기 식민지 지배자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 같아 섬뜩하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양 의원은 이어 일본 외무상이 한국 정부에게 책임을 지고 이번 서울중앙지법 판결의 시정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한 것은 삼권분립의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사법부에 압력을 넣어 판결을 뒤집으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궤변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이번 판결이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소송을 승리로 이끈 김강원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반 인도적 범죄의 경우 주권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국제법의 최근 추세"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양 의원은 "일본 외무상의 담화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위로는 커녕 또 다시 마음의 상처를 크게 주었다"며 "법치주권 국가인 한국 정부와 국민들을 완전히 무시한 안하무인적인 국제망언"이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제2차 판결이 나기 전에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죄를 향한 협의를 시작하여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양 의원은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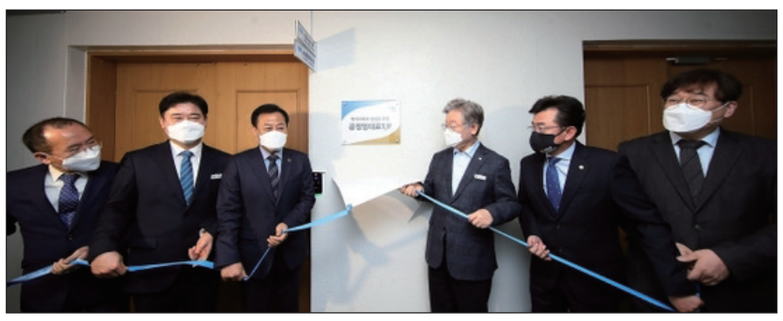
양 의원은 "제2차 소송 당사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며칠 전 저에게 일본 정부가 진심으로 사죄하면 소송을 취하할 생각이 있다고 절규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치권의 행동을 강조하기도 했다. 양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부정왜곡하고 망언을 일삼는 사람들을 단호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본인이 대표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일본 정부도 구태에서 과감히 벗어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배상의 행동에 나서길 다시 한번 촉구했다.

전순희/기자

장현국 의장, 25일 '공정임대료 TF' 현판식 참석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25일 경기도청 신관 1층에서정무수석실에서 실시된 '위기극복과 상생을 위한 공정임대료 TF 현판식'에 참석했다.이날 현판식에는 박근철 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종군 경기도 정무수석,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장 등이 함께했다.장현국 의장은 "민생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TF의 출범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공정임대료 실현을 통한 실질적 지원대책이 조속히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공정임대료 TF는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경기도에서 어려움에 처한 임차인에게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전담기구다.정무수석을 단장으로 하며 기획담당관·법무담당관·공정경제과·소상공인과가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최정근/기자



세종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기존 지방자치법의 틀에서 벗어난 별도의 지방의회법 제정해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5일 제6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완전한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을 위해 기존 지방자치법의 틀에서 벗어난 별도의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의원 전원이 참여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조직 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독자적인 예산권 부여 등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지방의회의 독립성 보장 촉구를 골자로 한다.

또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서 의사 결정 및 진행 과정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교섭단체 구성권 부여에 대한 요구도 포함됐다.

이번 건의안은 독립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 방안 미흡과 지방의원 조직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지방의회 조직에 대한 통일된 기준 미비 등 지난해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한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전국 지방의회의 문제의식을 별도의 법률 제정 방안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통령 비서실과 국무총리실, 국회의장실 및 국회사무처, 각 정당 대표와 전국 지방의회 등에 발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재은/기자

www.wawa105sujin.com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우편번호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14222 광명시 시청로7 홍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부회장 박류석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최수진
대표전화:1899-9659 e-mail: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서울.가50146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대표전화 : 1899-9659
편 집 국 : 02)2612-2959
팩 스 : 02)2060-4147
정 치 부: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사 회 부: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경 제 부: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스포츠부: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구독신청.배달안내 : 1899-9659 구독료 : 월 15.000 1부 800원

조길형 시장, 코로나 백신 적기 접종 위해 철저한 준비 나설 것

예방접종 세부 계획 수립 및 적극 홍보, 2021년 정부 업무보고 모니터링 등 강조

조길형 충주시장이 오는 2월로 예정된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철저한 준비에 나섰다.조 시장은 25일 열린 현안업무 영상회의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시민들의 피로와 어려움을 해소하는 최고의 방법은 철저한 방역과 올바른 정보의 전파에 있다"며 "정부의 예방접종 계획에 따른 철저한 준비와 정확한 정보 전달이 선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예방접종과 관련한 세부계획과 필수 인력, 자원 등을 확보해 대상자들이 적기에 접종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백신접종과 관련한 유언비어가 생기지 않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지시했다.충주시는 오는 2월 시작될 예정인 코로나19 백신접종의 원활한 수급과 신속하고 안전한 진행을 위해 지난 22일 '코로나19

백신접종 시행추진단'을 구성하고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그는 금일 시작하는 2021년 정부 업무보고에도 관심을 드러내며 "정부의 방향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기민한 행정력이 중요하다"며 "부서마다 담당 업무와 관련한 정부 업무보고 내용을 충실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주시가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과 속도가 정부 정책과 균형을 이루도록 해서 시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지역 발전의 박차를 가하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추진하는 한 해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조 시장은 과수화상병 대응 상황을 점검하며 "방제 대책 시행과 함께 매몰 농가에 대한 대체작목 발굴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에 집중해 달라"고도 했다.조길형 시장은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중에도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문화가 확산하는 모습에 용기를 얻고 있다"며 "기부물품의 철저한 관리와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백신접종 계획 적극 홍보 등 시민들의 노력에 부응하는 마땅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허태정 시장, 국회의장에게 시정 주요현안 건의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을 국가프로젝트로 관리방안 등 건의

허태정 시장은 22일 오후 대전을 방문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2021년 시정의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 차원의 국비 지원 등을 요청했다.

시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해 코로나19 방역과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도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있어 적극적인 국회의 지원과 관심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서 올해 시정방향으로 대전형 뉴딜의 본격적인 추진을 통한 디지털 혁신경제 전환과 '걷기 좋은 천리 길'을 조성하는 등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물론, 충청권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중부권의 거점 도시로서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할 것을 보고했다.주요 현안으로는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을 국가프로젝트로 관리방안과 함께 충청권 메가시티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광역철도 2단계 건설과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건설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아울러 주요 국비사업으로 트램 지선 신설 추진 유성대로~화산교 도로 개설 도안동로 확장공사 대전교도소 이전 혁신도시 조성 및 공공기관 유치 서대전~진주 간 철도 건설 서대전IC~두계3가 도로 확장 도심 통과 경부선·호남선 철도 지하화 대전의료원 설립 호남선 고속화 사업 등을 건의했다.

허태정 시장은 "올해는 민선7기의 축적된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대전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선도하며 새로운 도약의 성과를 창출해 내야하는 중요한 한 해"며 "한국판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과 혁신도시의 새로운 모델 등이 대전에서 제시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해 트램 승인, 혁신도시 지정, 의료원 예타면제 등 의미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며 "이제 시작이니 각 사업들의 내실을 채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최근 거론되고 있는 기상청과 3개 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 기관들이

대전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광용/기자

변광용 거제시장, 주말에도 현안 챙기기 분주

주말 코로나19 비상대책회의, 임시 선별진료소 찾아 방역 챙겨

변광용 거제시장이 주말을 반납한 채 지역 현안 대응에 매진하고 있다.거제시에 따르면 변 시장은 주말인 지난 23일과 24일 양일간 이른 아침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파악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거제에는 지난 20일 188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4일까지 총 32명의 지역 감염자가 나왔다.변 시장과 시 간부들은 회의에서 이 같은 현황과 상호의견을 공유하고 지역에서 발생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사례에 대해'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를 규명해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회의를 마친 후에는 곧장 임시 선별진료소가 마련된 관내 초등학교 등과 어선 침몰 사고가 발생한 남부면 해상을 찾아 현장 상황을 직접 챙겼다.거제시는 최근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마을 내 초등학교, 면사무소, 교회, 거제시 체육관 등 4개소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마을주민과 동선 노출자, 검사 희망자에 대한 선제적 진단 검사를 실시했다.검체채취 등을 위한 선별진료소 구성인력은 보건소와 면사무소 직원 등 10개 반 70명이 동원됐으며 총

942명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다.변 시장은 이날 임시선별진료소를 차례로 찾아 검사현황과 방역상황을 재점검하고 철저한 방역과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24일에는 거제 앞바다에서 침몰된 127대양호 실종 선원 수색현장 점검에도 나섰다.해당 사고는 23일 오후 3시 57분 경 거제시 남부면 갈곶도 해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당시 선박에는 한국인 9명, 인도네시아 1명 등 총 승선원 10명이 타고 있었으나 7명만 구조되고 나머지 승선원 3명은 실종됐다.변 시장은 사고 소식을 접하고 즉시 관계자들과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본청 소속 직원을 중심으로 5개 반 100명의 수색반을 구성해 24일 수색작업에 투입했다.수색반은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등 구역별 20명으로 나눠 해경과 합동작업을 진행하며 25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변광용 시장은 현장에서 수색상황을 점검한 뒤 "실종자 분들이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거제시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광명시,'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참여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22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문화정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이번 릴레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우선 보호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전국적인 운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릴레이는 참여자가 안전슬로건을 표현한 피켓사진과 해시태그를 SNS에 게시하고 다음 참여자

3명을 지목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박승원 광명시장은 최종환 파주시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해 '1단멈춤, 2쪽저쪽, 3초동안, 4고예방'이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실천메시지를 전달했다.박승원 광명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정비 공사를 진행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없는 광명을 만들겠다"며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전순희.최정부/기자

이정훈 강동구청장, 탈플라스틱 실천운동'GOGO 릴레이'동참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지난 19일 일회용품과 플라스틱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탈플라스틱 실천운동인 '고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탈플라스틱 사회 전환 공감과 확산을 위해 환경부 장관의 실천 다짐 메시지를 시작으로 전국 중앙부처 및 지자체, 기업, 환경단체로 확산되고 있는 고고 릴레이 캠페인은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하지 말아야 할 실천 1가지, 해야 할 실천 1가지를 약속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강동구는 현재 오랄-비, 테라싸이클, 쿨시티강동네트워크와 친환경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그 중 오랄-비의 모기업인 한국P&G사의 지명을 받은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일회용 컵 사용은 줄이고 텀블러 사용하고'라는 실천 구호를 든 팻말을 들고 캠페인에 참여하고

다음 참여자로 백명순 환경오너시민모임대표, 김인호 서울시의장, 박성수 송파구청장을 지명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일상생활 속에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일회용 컵 사용은 줄이고 텀블러를 사용하는 작은 실천 운동이 환경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 탈플라스틱 운동에 함께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며 "앞으로 구도 일회용품과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규석/기자

부여군, 지역균형 뉴딜 추진 정책 간담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협력담당관 초청, 부여형 뉴딜 추진 컨설팅

부여군은 지난 22일 군청 서동브리핑실에서 국가균형위원회 한경구 정책협력담당관을 초청해 박정현 부여군수를 비롯한 전 부서장과 주무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균형 뉴딜 추진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형 뉴딜을 지방정부로 확산하기 위한 지역균형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경구 정책협력담당관이 정부의 지역균형 뉴딜 세부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부여군의 의견을 수렴했다.이에 군은 부여형 뉴딜 추진 종합계획과 부여 친환경 스마트 원예단지 사계절 용수공급체계 구축, 백마강 힐링생태관광 클러스터 조성, 송국리유적 스마트 선사연구센터 구축, 국립 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 건립 등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경구 정책협력담당관은 "뉴딜 공모사업 선정시에는 균형발전 지표를 반영하고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하고 있다"며 "지역 주도형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의 혁신적이고 효과성이 뛰어난 뉴딜사업을 적극 발굴·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정현 부여군수는 "부여만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부여형 뉴딜사업들에 대해 진지한 검토와 과감한 수용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역이 서로 상생 발전하는 지역균형 뉴딜이 되길 바란다"며 "부여형 뉴딜정책이 지역균형 뉴딜의 모범사례가 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김보라 안성시장,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김보라 안성시장이 25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이 챌린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교통안전 문구가 담긴 사진을 SNS에 공유한 뒤 릴레이를 이어갈 3명을 지명하는 방식이다.김보라 시장은 "교통 약자인 어린이를 위해 보호구역 내 서행, 신호 준수, 정지선 준수 등 안전하고 성숙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이날 김성기 가평군수의 지명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한 김보라 시장은 다음 참여자로 유기상 고창군수, 고문수 안성소방서장, 이명균 안성경찰서장을 지명했다.

김남주/기자

서울시, 청년구직자-글로벌기업·유망스타트업 매칭 '청년인턴 직무캠프'

3~4개월 걸친 사전 전문 직무교육…교육비·인턴십 인건비 전액 서울시가 지원

서울시가 청년들이 선망하는 기업과 준비된 청년구직자를 연결해 주는 새로운 유형의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를 시작한다.구직을 원하는 청년들이 3M, GM, P&G 같은 글로벌기업과 신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일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청년구직자와 기업을 매칭하는 프로그램이다.

코로나19로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축소·연기하면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뎌야 할 청년들이 큰 타격을 입은데다 직무중심 채용문화가 확산되면서 경력형성 기회조차 쌓기 어려운 청년들의 취업난은 가중됐다.그러나 한편으로는 프로그래밍, 빅데이터, 클라우드 같은 신산업 분야 유망기업들은 적정한 인력을 찾지 못하고 있어 일자리의 미스매칭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대안이다.

원하는 업무를 하지 못하고 직무와 상관없는 단순 사무보조 수준에 그쳐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지 못했던 인턴십 사업을 탈피해 선호하는 기업에서 실전 중심의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둔다.

인턴십 전에 3~4개월에 걸친 전문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특징이다.현장경험을 사전에 집중적으로 쌓음으로써 바로 실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 참여규모는 청년 350명이다.서울시가 직접 고용 해 기업에 투입, 3개월 간 인턴십으로 참여한다.1인당 약 350만원이 소요되는 전문직무교육과 인턴십 급여는 전액 서울시가 지원한다.

인턴십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기업과 구직자의 상호 니즈가 충족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교육 2·3개월 차부터 직무별로 10~20개 기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성과발표회를 열어 직무와 능력에 맞는 기업 매칭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서울시는 작년부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협력해 회원사인 3M, GM, P&G 등 50여개 글로벌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냈다.100여명 규모로 인턴십에 참여할 계획. 서울시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작년 11월부터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을 위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원사 인턴십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는 별도의 직무상담과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제공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는 추가로 국내 신산업 분야 성장유망기업 100여개사를 이달 29일까지 모집한다.

청년 선호도, 고용 안정성,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한다.시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인턴십 참여자 선발과 교육과정 설계에 참여해 원하는 인재를 확보할 기회라고 밝히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참여 기업은 서울시의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한 홍보도 지원받는다.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서울시, 서울일자리포털 등 각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참여기업 모집공고를 확인하면 된다.서울시는 2월 초까지 신성장 분야 기업 선발을 마치고 3~4월 중 350명 청년인턴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전체 인원 중 20% 이상을 취약계층으로 선발한다.이후 5월부터 사전 전문 직무교육을 시작한다.청년인턴 모집공고 및 접수 → 1차 서류전형 → 2차 실무역량테스트 → 3차 최종면접 및 결과발표의 절차를 진행한다.

선발과정별 세부 평가방식은 선정된 전담교육기관과 참여기업이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며 외국계 글로벌 기업 인턴 희망자의 경우 외국어 역량을 추가로 평가할 수 있다.직무 교육분야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IT/SW, 디자인, 마케팅·경영·기획 등 기업 수요가 높은 직무분야 중에 선정된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해 결정된다.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대폭 축소했고 채용문화도 직무중심이 대세가 된 상황이다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청년들은 일 경험을 쌓을 기회조차 잡기 힘들다는 현실 앞에서 절망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신산업 분야 기업들은 실무능을 갖춘 인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서울시가 새롭게 시작하는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는 이런 기업과 청년구직자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필요한 인재를 찾는 기업과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턴십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니즈가 맞아 떨어진다면 획기적인 청년일자리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강화군 군민안전지킴이 'CCTV 통합관제센터'

365일 24시간 빈틈없는 관제

강화군의 CCTV 통합관제센터가 빈틈없는 관제로 군민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군청 옆 지킴이센터 4층에 위치한 통합관제센터는 175㎡ 규모에 상황실, 장비실, 운영실 등이 갖춰져 있으며 방범 외에도 어린이 안전 및 문화재 감시 등을 목적으로 총 926대의 CCTV를 전문인력이 24시간 실시간 관제하고 있다.통합관제센터는 지난해 각종 사건·사고와 관련된 CCTV 영상정보 322건을 경찰서에 제공해 범인 검거에 결정적 도움을 줬다.또한, 관제요원이 신고한 범죄·재난예방 신고는 80건에 이른다.실제 절도현장을 발견하고 범인의 인상착의 등을 경찰에 실시간으로 제공해 범인 검거에 기여했으며 실종자 신고 접수 후 인근 지역을 정말 관제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실종자를 찾아 2차 피해를 막았다.

또한, 심야시간에 강화대교 위에서 신발을 벗는 자살 의심 행동자를 찾아 112상황실에 긴급 출동을 요청하는 등 모범사례가 이어지고 있다.유천호 군수는 "CCTV 통합관제센터는 실시간 관제를 통해 범죄뿐 아니라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있다"며 "올해에도 취약지역 14개소에 CCTV 추가 도입하는 등 안전한 강화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강화군, 한겨울 고품질 토마토·오이 출하 구슬땀

첨단농업육성사업 결실, 농한기 농가 고소득 창출

강화군에서는 한겨울 매서운 한파를 견뎌내고 토마토, 오이의 출하가 한창이다.한겨울 대한 추위를 이겨낸 관내 시설하우스에서는 지난해 10월~11월에 정식한 고품질의 토마토와 오이가 높은 가격으로 출하되고 있어 농가의 웃음꽃이 활짝 폈다.군은 봄·여름 재배작인 토마토, 오이 등의 연중 생산이 가능하도록 첨단농업 육성지원 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특히 시설 농가의 동절기 저온, 일조 부족 등 불리한 환경조건과 과도한 난방 유류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절감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있다.지난해 과채류 맞춤형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강화읍 전민규, 불은면 황근하 농가는 공기열히트펌프와 근권난방 에너지절감 패키지기술로 에너지 비용은 40% 이상 절감하면서 생산량은 50%이상 증가했다.

전민규 농가는 "작년 잦은 태풍과 긴 장마로 인해 작물 생육에 불리하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기존 시설원예 지원사업과 에너지 절감기술로 경영비를 절감하고 한겨울에도 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어 농한기 소득에 큰 도움이 된다"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유천호 군수는 "농·축·어업분야 예산은 민선 7기 취임 전인 2017년 424억원에서 올해는 918억원으로 두배 이상 증액했다"며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인천공항 입국자 특별수송 운영 300일…10만명 수송 돌파"확진전파 전무"

확진율 높은 해외입국자 수송에도…운수종사자 확진 한 건도 없어 "철저한 방역결과"

서울시는 '20년 4.2부터 시행한 '인천공항 해외 입국자 특별수송 전담택시'가 운영 300일만에 이용객 10만명을 수송했다고 밝혔다.시는 해외 입국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철저한 방역 관리에 따라 해외 입국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특별수송 전담택시'를 운영해왔다.현재까지 운영 300일을 맞아 일평균 357명, 총 103,934명을 수송해왔으며 해외 입국자의 안전한 귀가를 도우면서도 감염병의 해외 유입 원천을 철저하게 차단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인천공항 특별수송에는 입국자의 25%가 외국인 점을 감안, 외국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외국인관광택시와 콜밴 등 377대가 전담하고 있으며 인천공항 1, 2터미널에 별도의 안내데스크를 운영해 해외입국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다.이러한 조치로 인천공항 → 선별 진료소 → 자가격리 장소까지 전체 경로에 대해 해외입국자의 이동을 책임지며 내국인과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특별수송 전담택시는 해외입국자에 의한 전파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운전기사와 승객을 분리한 가림막 설치, 승객 하차 후 철저한 소독과 환기, 손소독제 비치 및 운전기사 수시 소독 등을 실시하며 철저한 방역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그 결과 해외 입국자의 코로나19 확진과 10만 4천여명에 이르는 많은 시민을 수송하면서도 특별수송 택시 운수종사자의 확진 건수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이용실적을 살펴보면, 인천공항에서 강남구로 이동하는 이용객이 9,457명, 전체의 9.1%에 이르며 높은 이용을 보였다.이어 마포구가 8,949명 8.6%, 강서구 5,978명 5.8%였으며 도봉구는 980명 0.9%로 가장 낮은 이용률을 보였다.

이용시간은 비행기 운행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주일 중 금요일이 18,717명로 가장 많았고 시간대별로 보면 16~19시 사이가 39,358명으로 가장 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앞으로도 시는 코로나19 종식까지 특별수송 전담택시를 운영하며 안전한 이동 체계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외국인 관광택시 운수종사자의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혹시 모를 감염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방역 및 감염병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들이 특별수송 전담택시를 통해 입국과 동시에 자가격리 장소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방역 관리를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수송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희/기자

옹진군, 풍요로운 어장 조성위해 지속 가능한 어업기반 마련

2021년 수산종자 매입방류 35억원, 덕적·자월 바다목장 조성 등 추진

인천시 옹진군은 2021년 약 5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산종자 매입·방류, 연안바다목장 및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옹진군은 어장환경 변화와 자원 남획 등으로 감소되어가는 수산자원을 회복시켜 어업 생산성 증대와 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이를 통해 지금까지 매년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연평, 백령·대청 연안바다목장이 조성 완료됐고 덕적·자월에 바다목장을 조성 중에 있다.아울러 옹진군은 해양수산부에서 '11년부터 약 10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 추진한 877ha 바다숲과 50ha 잘피숲을 조성·관리하고 있다.2021년 바다숲 대상 해역으로 대청도 서풍받이 주변 해역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3년간 약 15억원 예산으로 바다숲이 조성될 예정이다.옹진군은 2021년에는 약 35억원을 투입해 옹진군 수산업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권역별 특색을 고려한 맞춤형 종자방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서해 5도 및 덕적·자월 해역은 전복, 해삼, 꽃게, 넙치 등 어류를 중심으로 영흥, 북도 해역은 바지락, 동죽 등 패류를 중심으로 자원을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10억원으로 수산자원의 회복·증강 및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 하기 위해 덕적·자월 연안바다목장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바다목장은 서식처 및 산란장 조성을 위한 인공어초와 자연석이 시설되며 해역 특성에 맞는 경제성 어종의 종자방류와 바다목장 조성 효과 분석을 위한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이밖에 지속가능한 주꾸미 자원 공급 거점 구축을 위한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 해조류 성장과 번식 촉진을 위한 '해조숲 조성 시비재 시범지원' 체험어장 활성화를 위한 '유어장 패류 살포', 방류 효과분석을 위한 '패류종자 종자살포 효과조사'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이에 대해 옹진군 관계자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통해 연안 생태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수산자원 회복 및 생산량 증가로 어업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기반을 마련해 깨끗하고 풍요로운 어장을 만드는 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마이스업계 위기극복을 위한 '인천MICE지원센터'본격 운영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마이스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MICE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지역 마이스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인천관광공사 내에서 '인천MICE지원센터'를 운영해 관내 마이스 분야 스타트업육성과 관광·마이스 싱크탱크로 구성된 '인천 관광·마이스포럼'을 통해 코로나 시대 마이스 정책발굴을 지원해왔다.'인천MICE지원센터'는 '인천스타트업 파크' 2층에 미팅룸과 강의실 등 업무공간 조성을 마치고 오는 26일 개소하면서 사업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시는 '인천MICE지원센터'에서 코로나19 피해 및 고충을 듣고 상담하는 마이스종합상담실을 설치하는 등 지역마이스업체 위기대응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미팅테크놀로지 시스템을 미팅룸에 구축해 비대면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 놓았다.센터에서는 마이스업계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위기극복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새로운 트랜드로 자리잡은 디지털 마이스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마이스업체 위기대응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이스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마이스관련 유망 스타트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공모를 통해 마이스 창업기업을 선발해 사업화자금, 창업교육, 맞춤형 컨설팅, 홍보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아울러 인천 관광·마이스 전문가 인적 네트워크로 구축된'인천 관광·마이스포럼' 운영을 통해 침체된 관광·마이스산업을 활성화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박찬훈 시 문화관광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마이스업계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위기극복 사업화자금 지원 등 인천MICE지원센터 정식 개소를 기점으로 센터의 기능을 확대 운영하게 됐다" 며 아울러 "비대면 시대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과 미팅테크놀로지 컨설팅 등 관내 마이스업계가 뉴노멀 시대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한성백제박물관, 백제왕궁 존재 알려주는 宮자 토기 최초 공개…600점 유물전

백제왕궁 있었다.을 알려주는 '宮자 토기', 여러 명 화장한 '화장인골' 첫 전시

몽촌토성에 백제 왕궁이 있었다.을 알려주는 '宮'자가 새겨진 토기', 백제 왕실의 매장 의례를 보여주는 '화장인골', 함께 발견된 유리구슬과 장신구가 최초로 공개된다.

한성백제박물관은 한성 백제 왕도의 핵심유적인 몽촌토성과 석촌동 고분군에서 발굴·출토된 유물 600여 점을 최초로 공개하는'백제왕도 발굴조사 성과전, 왕성과 왕릉'특별전을 1월 19일~3월 21일 개최한다고 밝혔다.한성백제박물관은 당초 작년 12월 17일에 전시를 계획했었으나 '저녁 9시 이후 서울 멈춤'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임시 휴관해왔다.방역수칙 조정으로 19일부터 공공문화시설 운영이 재개되면서 사전 예약제 방식으로 특별전을 열게 됐다.

이번 특별전은 한성백제박물관 백제학연구소가 '13년부터 약 6년에 걸쳐 발굴하고 고증한 결실을 총망라해 대대적으로 여는 것이다.

그동안 이 일대 발굴유물을 일부 공개한 적은 있지만 백제유적의 핵심인 몽촌토성과 석촌동 고분군에서 나온 유물 수백 점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는 건 처음이다.전시는 몽촌토성과 석촌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은 물론 지도·영상·모형 등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 한성기 백제왕도의 경관, 몽촌토성의 역사성, 석촌동 고분군의 구조, 백제인의 매장의례 등을 사실감 있게 구현했다.

고고학 야외조사의 현장사무실도 모형과 영상으로 재현해 발굴조사의 현장감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전시는 총 4부로 1부 '백제왕도로의 초대' 2부 '백제 왕성, 몽촌토성' 3부 '백제 왕릉, 석촌동 고분군' 4부 '과거에서 미래로' 로 구성된다.1부에서는 백제왕도 발굴조사 과정과 결과를 지도·연표 등으로 보여준다.1부 전시의 대표 유물은 '宮'자가 새겨진 토기다.백제유적에서 '宮'자가 새겨진 유물이 발견된 건 처음으로 몽촌토성에 백제왕궁이 있었다.을 증명하는 근거로 주목받고 있다.2부는 몽촌토성의 역사와 몽촌토성에서 삶을 영위했던 사람들의 문화상을 출토유물을 통해 보여준다.당시 백제 귀족들이 차 문화를 즐겼음을 보여주는 찻잎을 가는 절구와 공이, 찻잔을 만나볼 수 있다.의례용 그릇인 '세발토기'와 '그릇받침'을 비롯해 '굴뚝장식'과 '토관' 등을 통해 백제 왕성으로서 몽촌토성의 위상도 엿볼 수 있다.백제인의 얼굴을 새긴 '사람 얼굴이 새겨진 토기'도 미소를 자아낸다.몽촌토성의 집수지도 모형과 영상으로 제작해 관람객들이 발굴조사의 현장감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3부는 석촌동 고분군의 무덤 구조와 성격, 백제 왕실의 매장의례를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여러 명을 화장한 '화장 인골'이 처음으로 공개된다.출토 당시 화장 인골 파편과 함께 불에 탄 흙 속에서 발견된 유리구슬, 금 귀걸이 등도 최초 공개된다.이밖에 백제의 금제 장신구, 금박 구슬 등도 볼 수 있다.4부에서는 야외발굴조사 현장을 그대로 재현한 공간을 마련한다.발굴 현장에 설치된 사무실을 재현해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발굴조사원의 일상을 들여다볼 수 있게 했다.이를 통해 고고학 야외발굴조사가 단순히 과거를 탐구하는 데 머물지 않고 더 나은 미래로 나가기 위한 현재의 노력임을 설명한다.이번 특별전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누리집을 통해 사전예약 후 방문해 관람할 수 있다.사전예약 인원 미달 시 현장접수도 가능하다.코로나19 방역을 위해 5인 이상 단체관람은 금지되며 시간당 70명까지 입장 할 수 있다.한성백제박물관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김기섭 한성백제박물관장은 "이번 특별전은 한성백제박물관 백제학연구소가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해온 발굴의 성과를 시민들에게 최초 공개하는 자리다.몽촌토성에 백제왕궁이 존재했음을 알려주는 '宮'자 토기를 비롯해 다양한 유물들이 처음으로 공개되는 자리인 만큼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시민들이 역사의 숨결을 생생하게 느끼며 의미 있게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도봉구 둘리뮤지엄, 새단장해 1월 22일 개관

도봉구 둘리뮤지엄, 1월 22일부터 새단장해 손님맞이, 사전예약 필수

도봉구 둘리뮤지엄이 지난 1월 22일부터 새로운 전시 콘텐츠로 새단장해 개관한다.둘리뮤지엄은 2015년 7월 24일 개관해 6년간 운영해온 도봉구 대표 공립박물관이며 김수정 작가 '아기공룡 둘리'의 이야기를 기반한 체험전시 콘텐츠가 마련되어 있는 캐릭터 전문 박물관이다.둘리뮤지엄은 코로나19로 인한 휴관기간 동안 상설전시 '매직 어드벤처'와 '김파마의 작업실' 개편을 진행해 다양하고 변화된 전시 콘텐츠로 개관을 준비했다.

둘리뮤지엄 1전시실 '매직 어드벤처'는 1996년 극장판 '아기공룡 둘리-얼음별 대모험'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전시 동선에 따라 스토리가 이어지는 체험전시 공간이다.

인터렉션미디어와 4D라이더 기술을 적용한 전시 콘텐츠가 조성되어 있다.특히 유령버스 모형의 4D 극장은 '얼음별행 유형버스 4D'의 VR영상에 라이딩 효과가 함께 적용되는 이번 전시의 핵심 콘텐츠이다.3전시실 '김파마의 작업실'은 '아기공룡 둘리'가 처음 연재됐던 '보물섬'을 비롯해 단행본 시리즈, 스케치작업, 원화, 캐릭터 상품 등 '둘리' 관련 자료를 선보이며 한국 만화사에서 '아기공룡 둘리'가 갖는 의미와 가치를 조명한다.둘리뮤지엄은 전시 콘텐츠의 새단장을 기념해 둘리뮤지엄 홈페이지 '둘리후기' 게시판에 신규 4D체험 전시 관람 후기를 인증한 선착순 200명에게 코로나 예방 둘리 캐릭터 마스크 끈을 제공할 예정이다.현재 둘리뮤지엄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사전예약을 통해서만 입장이 가능하다.사전예약은 둘리뮤지엄 홈페이지 사전예약 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다.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코로나19로 지친 아이들과 부모님이 새로운 전시를 체험하며 일상의 생기와 즐거움을 되찾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만식/기자

강북구, 2021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공모…설명회 개최

이웃만들기, 공동체모임 활성화 등 총 5개 부문…1월 28일부터 접수

강북구가 2021년 마을공동체 사업을 수행할 단체를 공모한다.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해 주민들이 마을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지원하는 사업은 이웃만들기 사업 공동체모임 활성화 골목만들기 공동체 공간 활성화 지역사회의제특화 등 총 5개 부문이다.강북구에 거주하거나 직장, 학교 등 생활기반을 둔 3인 이상 주민모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1월 28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며 부문별로 2월 16일부터 2월 19일까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구는 사업 타당성, 현실성 등을 심사한 뒤 최종 선정 사업을 3월 말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구는 선정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상담, 회계 및 정산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친다.공모에 앞서 구는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를 위해 2월 1일 설명회를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한다.설명회는 유튜브 '강북구마을자치센터'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오후 2시에서 3시까지 진행된다.이 자리에서는 분야별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집행지침,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련한 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주민이 중심이 된 마을공동체가 한층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마을의 풍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이번 사업에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상순/기자

용산구, 한국판 뉴딜 60개 사업 추진

'한국판 뉴딜' 60개 사업 추진…53억원 규모

서울 용산구가 올해 60개에 달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을 벌인다.

분야는 디지털, 그린, 안정망 강화 3가지며 주요 사업으로는 사물인터넷 활용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스마트 골목길 조성 동빙고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하수악취 개선 희망키움 더존가게 운영 등이 있다.IoT 활용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은 효창공원 제1, 2공영주차장 일대에서 진행한다.기존 공영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바꾸고 '서울주차정보' 어플리케이션 및 민간 공유 플랫폼과 연계할 예정이다.유휴 주차면 활용도를 높여 주차난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은 구에서 생산하는 각종 데이터를 현행·표준화함으로서 누구나 활용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작업이다.오는 연말까지 구는 해당 플랫폼을 조성, 구 정책결정 기초로 쓴다.활용도 높은 자료는 시민들에게도 무료로 공개할 예정이다.스마트 골목길 조성은 서울시 골목길 재생사업의 하나로 용산구 소월로 20길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다.

폐쇄회로TV, 위험경보기가 포함된 스마트 보안등과 스마트 버스쉘터 등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 착공한다.동빙고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아동 재실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고성능 창호,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내외벽 단열재, 고효율 냉난방장치·보일러·조명,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등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스마트 하수악취 개선사업도 벌인다.지난해 구는 지역 내 하수악취 실태조사 및 저감대책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악취지도' 데이터를 구축했다.이를 바탕으로 구는 오는 10월까지 지역 하수관로 빗물받이 등 200곳에 악취 저감시설 및 차단장치를 설치한다.구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신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우수기관 벤치마킹, 우수부서 선정·포상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국판 뉴딜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국책사업이다.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담았다.지난해 구는 한국판 뉴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 미래전략 태스크포스 및 국별TF를 구성, 82개 신규 사업을 발굴했다.이후 타당성 검토, 구의회 예산안 심사를 거쳐 최종 내역을 확정한 것.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기획예산과 창의경영팀을 창의뉴딜팀으로 변경하는 등 조직개편도 마쳤다"며 "한국판 뉴딜을 용산이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상순/기자

동대문구, 임산부 908명에 농산물 꾸러미 지원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농가 지원, 임산부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

동대문구가 임산부 908명에게 연간 41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한다.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고 임신부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현재 임산부이며 영양플러스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임산부는 제외된다.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쇼핑몰인 에코이몰에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동대문구청 6층 경제진흥과에서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방문 접수 시에는 지원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임신·출산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된다.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는 월 4회, 회당 1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며 유기농 수·축산물, 무농약 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으로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고려해 구성됐다.주문 시 금액의 80%를 지원받고 나머지 20%는 신청자 본인 부담으로 결제하면 신선한 농산물 꾸러미가 주소지로 배송된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임산부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의 기회가 돼 지속적인 친환경농산물 소비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동희/기자

수원 화령전 가치 알리는 책 나왔다

수원시, 화령전 운한각 보물지정 기념해 '합리적인 의례공간, 수원 화령전' 발간

수원시가 수원 화령전 운한각의 보물 지정을 기념해 화령전의 가치를 알리는 책 '합리적인 의례공간, 수원 화령전'을 발간했다.화령전의 운한각·복도각·이안청은 2019년 8월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제2035호로 지정됐다.운한각은 정조의 어진을 모신 정전이고 이안청은 어진을 임시로 봉안하기 위해 만든 건물이다.복도각은 운한각과 이안청을 연결하는 공간이다.'합리적인 의례공간, 수원 화령전'은 각 분야 전문가 7명이 화령전의 문화재 가치에 관해 쓴 글을 엮은 책이다.화령전의 건축 특징과 문화재적 가치 화령전, 정조의 어진이 머문 공간 또 한 분의 정조, 어진을 모시는 방법 화령전의 건물 자세히 보기 살아 있는 왕의 공간으로 치장하다 영전 건축의 기품을 보여주다 수원사람들이 지킨 화령전, 보존과 활용의 톱니바퀴 등으로 구성했다.조선 시대 영전 건축에서 화령전이 갖는 의미, 화령전에 모셔져 있던 정조 어진의 정체, 화령전의 실내장식과 단청 특징, 화령전의 보존 과정 등을 설명한다.제사 절차와 건물 관리 규범, 건물에 보관한 기물 등을 묘사한 '화령전응행절목' 국역본도 수록했다.조선 시대에는 왕의 어진을 모신 영전이 여러 지역에 있었지만, 현재는 태조 어진을 모시는 전주 경기전과 수원 화령전만 남았다.화령전은 정조 승하 이듬해인 1801년에 건립됐다.당시 서울에서 궁궐 건축을 담당했던 최고의 목수들이 참여해 두 달 9일 만에 완성했다.짧은 기간에 완성했음에도 정교함이 돋보이고 기품이 느껴지는 건축물이다.어진을 모시던 정전과 임시 보관 건물인 이안청이 분리된 경기전과 달리 화령전은 정전과 이안청이 복도각으로 연결된 'ㄷ'자형 구조다.실용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공간 구성이 특징이다.화령전은 왕실 건축의 정수를 보여주고 창건 당시 원형이 잘 남아있어 보물로서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이러한 화령전의 문화재 가치를 집약해 책 제목을 '합리적인 의례공간, 수원 화령전'이라고 지었다.수원시 화성사업소 관계자는 "1908년 정조 어진이 덕수궁으로 옮겨진 이후 수원사람들은 화령전이 낡아서 무너질 때마다 십시일반 성금을 내 수리했다"며 "수원사람들 덕분에 화령전이 보존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화령전은 가치가 높은 뛰어난 건축물이지만 그동안 존재가 널리 알려지지 못했다"며 "화령전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문화재 가치가 재평가되고 위상도 더 높아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최정근/기자

이재명, 소상공인 고통 분담 위해 '공정 임대료 전담조직' 가동

통상 임대료 조사,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자 포상, 임대차 분쟁조정 활성화 방안 추진

경기도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 공정 임대료 실현을 위한 전담조직을 가동한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도청 1층 정무수석실에서 '위기극복과 상생을 위한 공정임대료 TF' 현판식을 개최했다.이 날 현판식에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대표의원, 윤종군 정무수석,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장,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이재명 지사는 현판식에서 "전대미문의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너무 고생이 큰 것 같다"며 "임대료 조정이 상당히 어려운 과제인데 상호간에 협력을 통해서 상생의 길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또 "얼마 전 차임증감 청구권 제도도 생겼지만 현실화 되려면 현장의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라며 "기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시는 임대인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도의회와 함께 연구해 보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은커녕 임대료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경기도에서 공정한 임대료 TF를 가동하게 돼서 정말 어느 때보다 뜻깊다"며 "경기도의회도 민생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도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전담조직은 정무수석을 단장으로 기획담당관, 법무담당관, 공정경제과, 소상공인과가 구성원으로 참여하며 월 2회 정기·수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전담조직 출범을 위한 준비회의를 시작으로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과 관련한 전문가를 초청해 자문을 받는 등 정책 발굴에 매진하고 있다.우선 도는 주요 상권의 '통상 임대료'를 조사해 임대료 조정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공표하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아울러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임대인에게 포상을 수여하는 등 자발적 임대료 감면에 동참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2017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의 활성화를 위해 분쟁조정 우수사례를 활용해 임차인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분쟁상담과 분쟁조정 신청의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으로서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그 조정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려는 소상공인에게는 변호사 수임료와 감정평가비용 등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또한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분쟁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 밖에 제도개선 과제도 발굴할 예정이다.지난해 9월 코로나19와 같은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 차임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다.하지만 도는 오히려 감액 청구가 1급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 상황이나 그에 버금가는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축소 해석될 여지가 있어, '경제사정의 변동'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를 법령에 명시하는 등 법 개정 방향에 대해 전문가, 소상공인, 임대인의 의견을 듣고 중앙정부 등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최정근/기자

광명시,'소득 상관없이 모든 산모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출산가정 → 모든 출산가정, 지원 대상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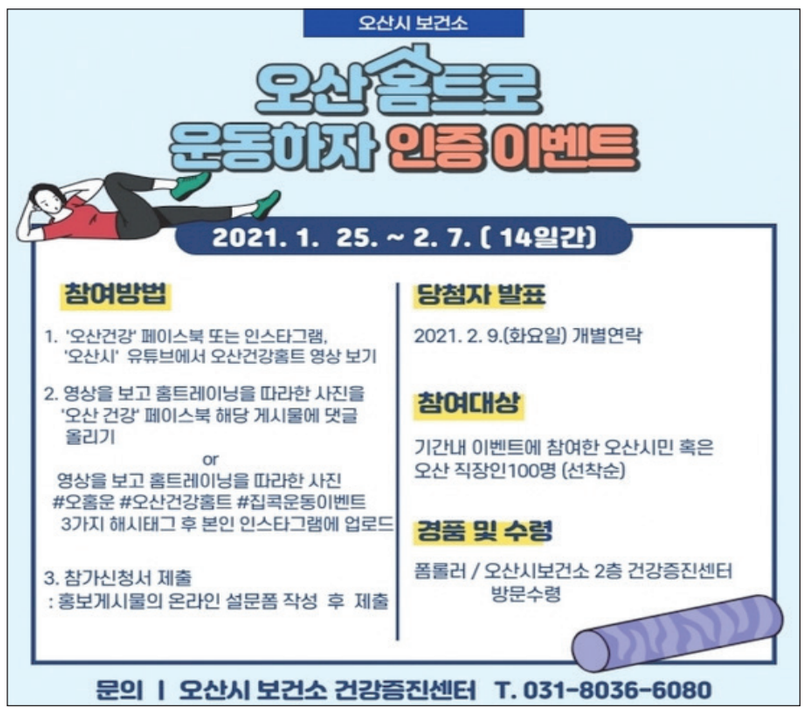
광명시는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산모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보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는 국비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가정만 지원했다.시는 매년 출생아 수가 감소함에 따라 출생률을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비를 투입해 광명시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를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출산일이 2021년 1월 1일부터인 산모부터 해당되며 광명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지원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등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10일까지, 최저 36만8000원에서 최고 75만6000원까지 지원한다.지원을 원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복지로에서 신청하거나 광명시보건소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시는 지난해 405명의 산모를 지원했으며 올해 1억7000여만원의 시비로 천여명이 넘는 산모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광명시보건소 관계자는 "광명시 모든 출산가정에 경제적 도움이 되고자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며 "매년 출생아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이번 사업이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출생아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순희/기자

오산시, 집에서 운동하는 '오산건강홈트'영상 인증이벤트 개최

오산시는 코로나19로 신체활동량이 저하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오산건강홈트'영상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오산건강홈트'영상 이벤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신체능력이 저하된 시민들을 위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쉽게 영상을 따라 운동하는 인증이벤트이다.참여 첫 번째 방법은 '오산건강'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오산시' 유튜브를 통해 볼 수 있는 오산건강홈트 영상을 시청하고 페이스북 게시물 댓글에 운동하는 사진을 찍어 올리면 된다.

두 번째 방법은 인스타그램에서 운동하는 사진을 올린 후 #오홈운 #오산건강홈트 #집콕운동이벤트 3가지 해시태그를 달면 된다.두 가지 방법 중 1개를 선택해 등록하고 온라인 설문지를 작성 후 제출하면 참여가 완료된다.참여기간은 1월 25일부터 2월 7일까지이며 오산시 지역주민 또는 오산시 직장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자세한 방법은 '오산건강'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당첨자 발표는 2월 9일 오후 6시까지 참여자들이 제출한 설문지를 통해 개별 연락할 예정이며 홈트레이닝에 도움이 되는 폼롤러를 경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고동훈 오산시 보건소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지만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이번 이벤트를 계획했다"며 "시민들도 집에서 운동을 통해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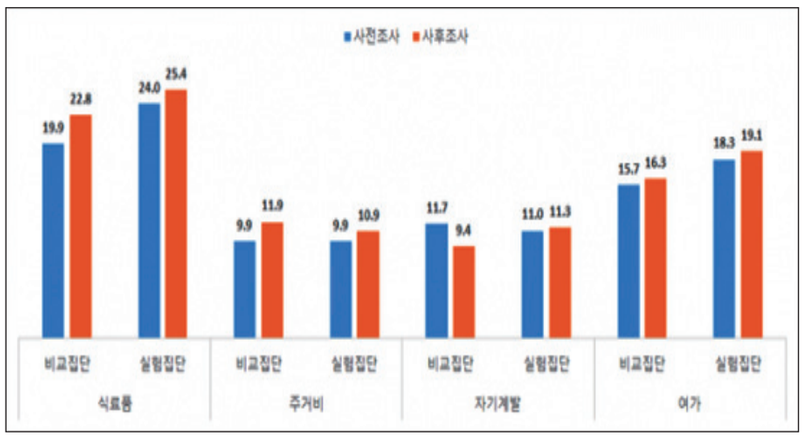
김남주/기자

경기연구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난 1년간 삶의 질 향상 효과 나타나"

경기연구원, 2019년부터 2020년에 걸친 1년 동안의 정책 실행에 대한 효과분석 결과 담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 사전 및 사후조사 비교 발간

지난 2019년 4월 1일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시작했다.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단위는 1년이며 사업 시행 이래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지난 1년 동안의 정책 실행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019년에 수행한 연구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정책효과 분석 -사전 및 사후조사 비교-의 후속 연구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 사전 및 사후조사 비교를 발간했다.지난 2019년 연구가 예비적 차원의 연구였던데 비해 이번 2020년 연구는 정책평가를 위한 본격적인 연구인 셈이다.



연구는 경기도 거주 청년 중 청년기본소득을 제공받기 전·후조사 모두 응답한 11,335명을 실험집단으로 구성했고 경기도 외 거주 청년 800명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해 사전·사후조사를 진행했다.분석 범주는 크게 행복, 건강과 식생활, 인식과 태도, 경제활동, 꿈-자본 등으로 설정했다.분석 결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정신건강, 운동빈도, 식생활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행복감을 안겨준 것으로 나타났다.인식과 태도의 변화도 가져와 신뢰, 젠더 인식, 평등사회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켰으며 꿈-자본과 관련해서도 상상력, 희망, 낙관성, 회복탄력성 등 모든 부분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낳았다.한편 청년기본소득 수령으로 노동시간은 주당 1.3시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기본소득이 노동시간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일반적인 우려를 불식시키는 대목이다.청년기본소득은 식사, 가사활동, 가족, 자기계발/학습/운동, 교제·여가활동, 사회적활동·봉사 등 자기계발이나 사회적 활동의 다양한 영역에서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를 가져왔다.이에 따라 자기계발비/교육비에 사용된 지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고서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4회 수령한 청년 중 42명을 선정해 집중집단면담과 개별인터뷰를 통한 질적 조사 수행 결과도 포함하고 있다.조사 결과, 경기도 청년들은 '기본소득의 무조건성, 보편성, 충분성'을 인식하고 '기본소득이 다시 시작할 기회와 도전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나아가 '충분한 수준에서의 기본소득은 삶의 변화를 추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표현했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이번 양적조사나 질적 조사 분석 결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삶의 질에 있어서 긍정적 효과를 발휘한 만큼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현 정책에 대한 확신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차제에 완전한 기본소득 이행을 위한 사전 단계의 디딤돌로 구축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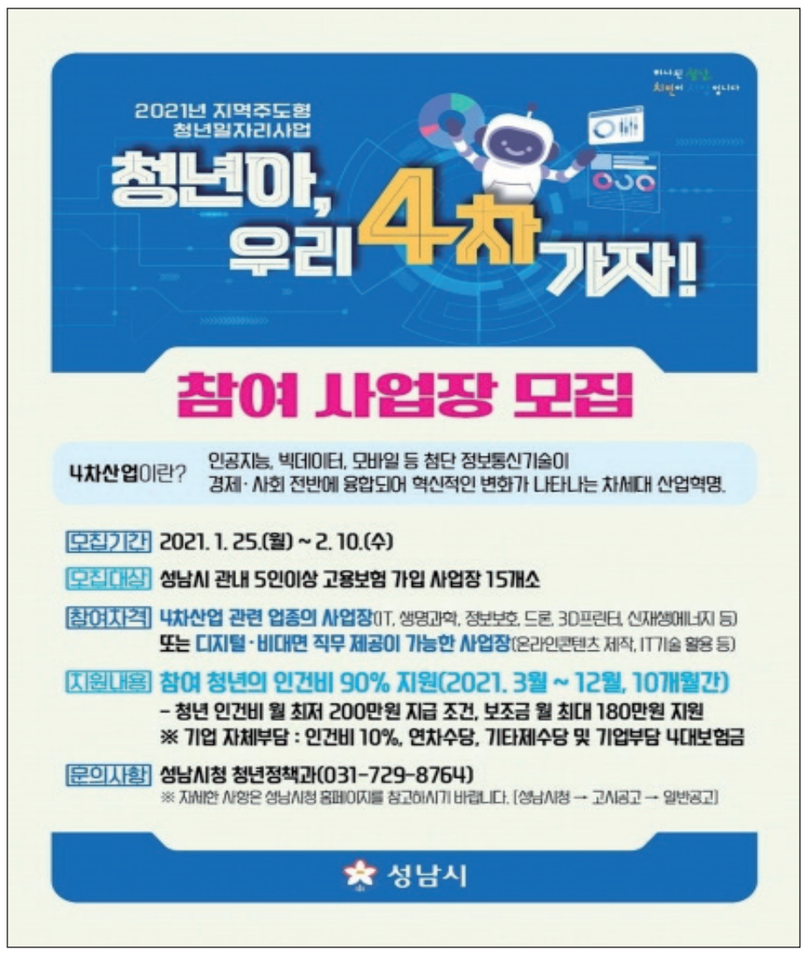
성남시 '청년아, 우리 4차 가자' 사업 참여 기업 15곳 모집

지역주도형 일자리…청년 최저 월급 200만원 중 90% 지원

성남시는 1월 25일부터 오는 2월 10일까지 지역주도형 일자리인 '청년아, 우리 4차 가자' 사업에 참여할 기업 15곳을 모집한다.4차 산업혁명 기술 가속화가 전망되는 가운데 청년들에게 디지털화된 근무환경의 일자리를 제공해 직무 능력을 높이게 하려고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선정기업에는 1개월 이내에 채용하는 성남지역 청년의 최저 월급 200만원 중 90%인 180만원을 최장 10개월간 지원해 고용에 관한 부담을 던다.참여 대상은 성남시에 사업자 등록한 고용보험가입자 5명 이상의 기업이면서 첨단 정보통신기술, 소프트웨어, 드론 등 4차산업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청년에게 온라인 콘텐츠 제작, IT 기술 활용 등의 디지털·비대면 직무 제공이 가능한 기업도 참여 대상이다.참여 희망 기업은 성남시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시청 청년정책과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성남시 청년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청년 채용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청년아, 우리 4차 가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율/기자



이재명표 주차환경개선사업, 올해 5076면 확보해 주차난 해소 나선다

자투리주차장, 무료개방주차장, 생활 SOC 공영주차장 3개 분야 추진

경기도가 고질적인 주차난 해결을 위해 올해에도 '주차 수요는 줄이고 공급은 늘리는' 방식의 '2021년도 경기도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총 5,076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이 사업은 노후 주택가나 상가 및 주거 밀집지역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오래된 주택을 소규모 주차장으로 조성하거나 부설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는 등 도민들의 생활불편을 대폭 개선하는데 목적을 뒀다.민선7기 경기도는 지난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 사업 첫해에는 2,363면을, 지난해에는 1,72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주차장확보율도 2019년 12월말 110.2%에서 2020년 9월말 기준 116.7%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에는 총 3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해 자투리주차장 조성, 무료개방주차장, 생활 SOC 공영주차장 조성 등 3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먼저 '자투리주차장 조성'은 시군이 오래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자투리땅, 시·군유지 등으로 부지를 확보하면, 이를 주차공간으로 조성하도록 경기도가 조성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분야다.

올해 24억원을 들여 252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무료개방주차장 지원' 분야는 종교시설이나 학교, 공동주택, 대형상가 등의 부설주차장을 일 7시간, 주 35시간 이상 무료 개방하면, 주차장 설치 및 시설개선 비용을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올해 20억원 지원을 통해 800면의 주차 공간을 무료로 개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생활 SOC 공영주차장 조성'은 구도심이나 상가·주거 밀집지역의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비를 1곳당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올해는 4,024면 조성을 위해 16개 시·군 27개 사업에 256억원을 지원한다.도 관계자는 "적은 예산이지만 주차수요는 줄이고 주차면수를 늘리며 기존 조성된 부설주차장을 관리주체가 주차 공간 미사용 시간대에 무료개방을 함으로써 주차난 완화효과가 있는 사업인 만큼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자동차 사용량 증가에 따라 주차 수요량이 날로 증가하는 만큼, 주차난 완화를 위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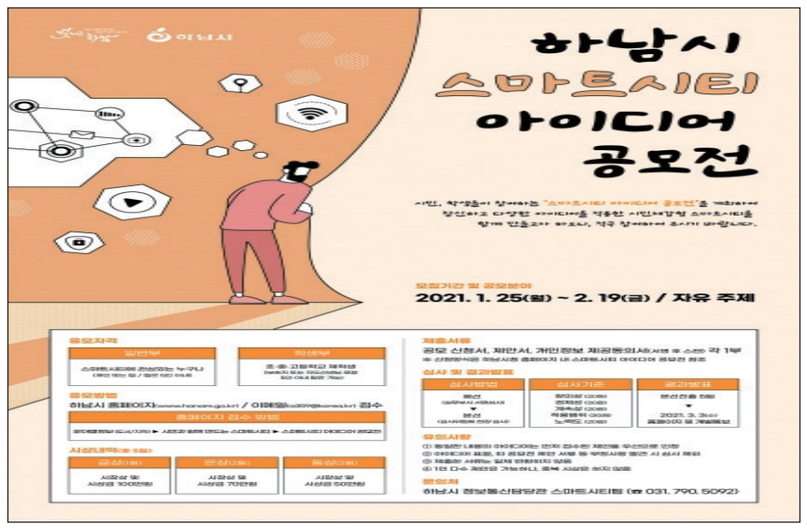
최만식/기자

하남시, 시민이 직접 제안하는 '스마트시티 아이디어' 공모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 접수

하남시는 도시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를 시민들이 직접 발굴해 제안하는 '스마트시티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고 25일 밝혔다.스마트기술을 활용해 하남시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거나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면 어떠한 내용이라도 자유롭게 응모할 수 있다.일반부와 학생부로 나눠 접수하며 개인 또는 5인 이내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초·중·고교 재학생은 보호자나 지도교사를 포함한 5인 이내 팀으로만 지원 가능하다.신청은 2월 19일까지 신청서와 제안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하남시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서식은 홈페이지 내 스마트시티 아이디어 공모전 메뉴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접수된 아이디어 가운데 서면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할 5개 팀을 가리며 3월 중 현장 PPT 발표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5개 팀은 순위에 따라 금상, 은상, 동상과 시장 상장을 받는다.시는 이번에 선정된 아이디어를 시민과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스마트시티 리빙랩'으로 진행하고 올해 중 실증사업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시 관계자는 "공모전을 통해 시민들의 빛나는 아이디어를 스마트시티 사업에 접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스마트시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대경권 청년, '2020 희망이음 프로젝트' 全 부문 석권

기업애로해결, 기업탐방 후기 등 4개 부문 12팀 수상

경상북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한 '2020 희망이음 프로젝트'경진대회에서 대경권 청년들이 전 부문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석권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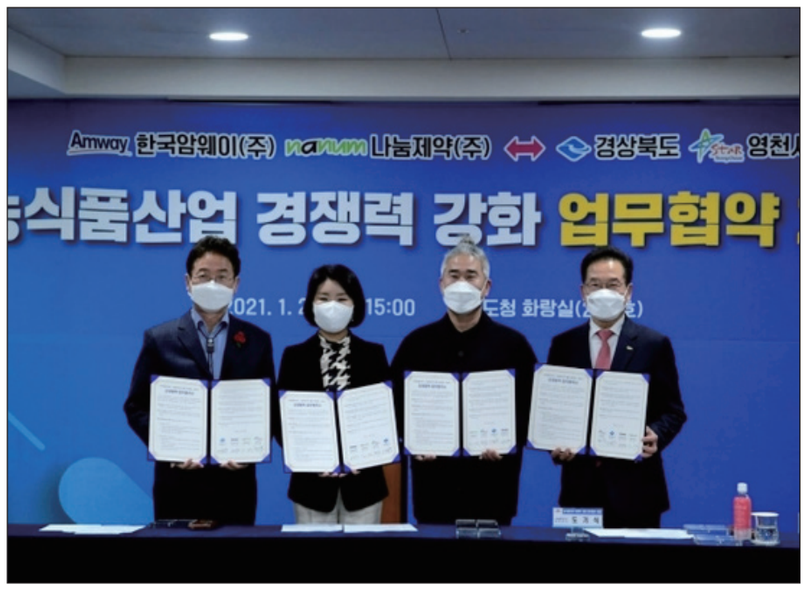
희망이음 프로젝트는 지역 청년들에게 지역기업 탐방, 취업관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지역기업에 대한 인식전환과 지역 우수인재의 대기업·수도권 편중 현상을 완화해 지역기업과 취업 희망자들을 연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이번 프로젝트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5개 권역이 참여하는'지역기업-지역인재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대경권역은 경북도와 경북테크노파크 주도로 사업을 추진했다.희망이음 프로젝트의 일환인 이번 경진대회는 총 4개 부문으로 나눠서 진행됐으며 대경권은 4개 전 부문에서 총 12개 팀이 수상을 했고 시상식은 2021년 2월 말 개최될 예정이다.

기업애로해결 부문 금상을 차지한 "아토"팀은 AI와 센서를 활용한 고령층을 위한 간편주문 기능을 개발해 선보였으며 은상을 차지한 "CAMA"팀은 자동화수동변속기의 정밀제어 기능 향상을 위한 동역학 해석 연구결과를 제시했다.지역문제 해결 부문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그린팔레트"팀은 못난이 농산물을 활용한 음식물 쓰레기 감축 방안을 제안했고 금상을 수상한"N.S.F"팀은 축산농가 악취제거 큐브를 개발했다.기업탐방 우수후기 부문은 "대장장이","일취월장"팀이 금상을 수상했고 은상과 동상도 각 2개팀이 수상했으며 서포터즈 부문 또한 대경권 2개팀이 우수상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박시균 경상북도 청년정책관은 "희망이음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년들의 취업을 향한 열정적인 활동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며 "청년일자리부터 주거·복지·문화까지 전 분야를 아우르는 청년정책 플랫폼을 마련해 청년이 행복한 경북 만들기에 주력 하겠다"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영천시, 건강기능식품산업 메카로 부상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업무협약 체결



영천시에서 글로벌기업 암웨이의 건강기능식품 제품을 만든다.영천시는 22일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최기문 영천시장, 배수정 한국암웨이 대표, 도기식 나눔제약 대표 등 4개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4개 기관은 경상북도 농산물 사용과 유통 확대를 통한 농식품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을 공동으로 해 세계시장 진출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이날 행사에는 조영제 영천시의회 의장, 이춘우 경북도 의원, 박영환 경북도 의원이 모두 참석해 관계자를 격려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을 축하했다.암웨이는 전 세계 58개국에 해외법인을 두고 있는 세계적 기업으로 1,000여 품목을 유통하고 있으며 한국암웨이는 전국에 14개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300여 품목을 생산하고 있다.최기문 시장은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영천시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게 되면 지역 농산물 유통과 한방산업에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세계적인 기업과의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 " 고 말했다.

한반식/기자

영주시, 2021년 언택트 산업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언택트 산업분야 경쟁력 강화

영주시는 오는 2월1일부터 2월 26일까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2021년 언택트 산업분야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올해 처음 시행되는 '언택트 산업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비해 비대면·디지털 산업 분야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제공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참여업체 자격요건은 공고일이후 만39세이하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고 영주시에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이 4차 산업기반 언택트 산업분야로 등록된 중소기업인 경우 사업에 참여 가능하다.

사업규모는 경북 도내 청년 199명으로 업체당 최대 2명까지 지원 가능하다.정량적 평가를 거쳐 지원기업과 청년을 선정하며 선정된 기업은 청년 1인당 월 200만원씩 인건비를 지원받게 된다.참여희망기업은 오는 2월 1일부터 2월 26일 오후6시까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장욱현 영주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비해 언택트 산업분야는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다"며 "비대면·디지털 분야의 4차 산업 분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일자리 제공 및 지역 정착에도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기대된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만식/기자

안동, 행복주택'엘에이치 천년나무'입주 시작

신혼부부, 청년세대 등 200가구 1월 27일 입주

안동시 운흥동 일원에 건립된 행복주택'안동운흥 엘에이치 천년나무'는 1월 27일부터 입주를 시작한다.안동운흥 엘에이치 천년나무는 운흥동 271-5번지 일원 4,957㎡의 부지에 203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9층, 2개동 200가구 규모로 신축됐으며 단지 내 주민 취미 공방, 주민 카페, 공동세탁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행복주택은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청년에게 주거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역외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성장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대학생·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주변 시세의 60~80% 범위 내에서 공급됨으로써 입주세대에 주거비 경감을 통해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 말했다.아파트 주변에는 대형마트·탈춤공연장과 낙동강변이 위치하고 기차역사가 이전됨에 따라 역사부지를 포함한 폐선부지 내 테마공원, 문화시설 등이 조성되면 쾌적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해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단지로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세기/기자

포항시,'죽장면 상사·석계리 선도 산림경영단지'조성 업무협약 체결

포항시, 포항시 산림조합과 죽장면 일대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

포항시는 22일 포항시산림조합 숲마을에서 포항시산림조합 관계자와 임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시 산림조합과 '21년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성공적인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단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사업의 적극홍보 등을 협력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은 산림청 전국공모를 통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유림의 소유규모가 영세하고 산주 직접사업이 어려운 산림지역에 대해, 집약적 산림경영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소득작물 채취 등과 관련된 일자리를 만들어 사유림의 난개 발을 막고 풍요로운 산림으로 경영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포항시는 산림경영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철저한 현장조사와 오랜 준비기간을 거친 덕분에 2020년 9월 25일 죽장면 석계리 및 상사리 지구가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최종 선정되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총 75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지원을 받게 됐다.2021 선도경영단지로 선정된 곳은 포항, 무주, 곡성 총 3곳이다.이에 포항시에서는 최근까지 공익적 가치로만 평가받던 산림에 집단화•규모화 된 산림경영단지를 조성해 단기적으로 산딸기 엄나무 등의 임산물을 재배해 수익을 내고 장기 소득사업으로 우산고로쇠를 식재·관리 하며 운재로 설치 등의 기반조성 사업을 시행해 체계적으로

산림을 경영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시와 포항시산림조합은 선도 산림경영단지 등 업무협약을 통해 전국 최고의 선도 산림경영단지가 되도록 할 것이며 이로 인해 농산촌 지역에도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인구가 계속 유입 되어 51만 포항 인구 정책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위드코로나 시대, 이-커머스로 날개 달자

지역 기업 대상, 이커머스 시장 이해와 온택트 마케팅 전략 위한 세미나 개최

대구시는 지역 기업들에게 위드코로나 시대 온라인을 통해 소통하는 온택트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고자 '이커머스 시장,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27일 오후 2시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상황 속에서도 비대면 만남과 소통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이커머스 시장이 떠오르고 있다.지난해 이커머스 시장규모는 약 140조원이었으며 2022년에는 2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지역 기업들에게 이커머스 시장의 핵심 키워드와 트렌드를 통해 온라인 시장에 적합한 상품기획·개발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날카로운 상상력연구소 김용섭 소장과 위메프 상생협력팀 김태원 MD가 강연자로 나선다.1부에서는 트렌드 분석가이자 경영전략 컨설턴트로 활동 중인 김용섭 소장이 팬데믹과 언택트 시대의 트렌드 흐름을 이야기하고 이어서 2부에서는 김태원 MD가 이커머스 시장의 이해와 온라인 판매 마케팅 전략 및 사례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김태운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한 불황과 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지만 온라인을 통한 이커머스 시장의 규모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세분화되고 맞춤화된 상품기획 트렌드와 다양한 콘텐츠 제공으로 지역 기업들이 온라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기업들이 시장과 트렌드의 변화를 잘 읽고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대구시도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이번 세미나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사전신청을 통한 현장 참가인원을 최소화하고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남궁영기/기자

의성군, 2021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추진

의성군은 치매 환자의 지속적 치료와 치료비 부담경감을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수혜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이며 건강보험료 본인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약제비 본인 부담금에 한 해 매월 최대 3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 받을 수 있다.신청 시 구비서류는 치매진단코드 및 치매 치료제가 명시된 대상자의 처방전, 본인 명의 통장사본, 신분증이다.아울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인 어르신용 기저귀, 약달력 및 약 보관함, 물티슈, 인지강화용품을 제공한다.김주수 의성군수는 "해당 사업 외에도 치매조기검진,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실종예방사업,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세기/기자

창원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 비용 90% 지원

미세먼지 저감 목적으로 총 60억원 규모, 2월 10일까지 신청접수

창원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2월 1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5일 밝혔다.지원대상은 노후화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교체하는 중·소기업 기존 설치된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이 해당된다.

지원받은 시설은 3년 이상 운영을 해야 하고 방지시설 가동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을 부착해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해야 한다.지원금액은 설치비 한도 내 실제 소요비용의 90%이며 개별 대기방지시설의 경우 최대 4억5000만원, 공동방지시설은 최대 7억2000만원, 저녹스버너는 버너의 용량에 따라 248만원부터 최대 1,52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보조금 지급 대상자는 대기배출사업장의 경우는 지원 시급성, 방지시설 설치 효과 등에 대해 서류 및 현장 평가해 선정하고 저녹스버너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한다.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해 참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청 환경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시는 지난해까지 135개 사업장에 방지시설 교체비용 90억원, 저녹스버너 설치는 387개 사업장에 25억원을 지원했으며 방지시설 교체 후 먼지 배출농도가 교체 전보다 평균 45% 감소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정근 환경녹지국장은 "이 사업은 환경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규모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올해도 많은 사업장들의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진주시,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 박차

노후 공중화장실 교체 4개소, 여성안심지킴이 운영도

진주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 공중화장실 교체 사업과 여성안심지킴이 운영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시는 이용객이 많고 노후화 정도가 심한 신안 둔치, 평거 게이트볼장, 평거녹지공원, 가호 어린이공원 등 공중화장실 4곳을 선정해 최신형 공중화장실로 교체한다.

이번 교체대상 공중화장실은 낡고 오래된 간이화장실로 위생 문제와 장애인 접근성 부족 등의 불편을 겪어 왔다.이를 해결하고자 시는 올해 3억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이용객이 증가하는 4월 이내 완공을 목표로 교체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또한, 시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공중화장실 내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여성 안심지킴이' 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해 나간다고 밝혔다.여성 안심지킴이는 불법촬영 감시 전담인원 4명을 배치해 진주시 공중화장실 409개소를 대상으로 육안점검은 물론 전파·영상 탐지기를 이용한 정밀점검을 상시 실시해 카메라 발견 즉시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다.

최광용/기자

산청군 덕산시장서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이벤트

설 명절 소비촉진…1인 1일 최대 3만원 상품권 환급

산청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덕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소비촉진 행사로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군은 오는 2월9일까지 덕산시장과 주변 상가를 대상으로 이번 행사를 진행한다.업종 구분 없이 식당, 이미용업, 도소매업 등 덕산시장과 상가를 이용한 소비자라면 당일 합산 5만원 이상 영수증을 제출하면 온누리상품권 5000원을 되돌려 준다.단 농협·대형마트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구체적으로는 1인 당일 합산 영수증에 한해 5만원 당 상품권 5000원을 지급하며 30만원 이상 영수증 제출 시 1인 1일 최대 3만원의 상품권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다만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으며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제로페이 가맹점 등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점포라야 한다.상품권 수령은 덕산시장 내 '베이커진'과 '지리산유정란'에서 당일 구매 영수증 확인 후 교환할 수 있으며 상품권 소진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다.군 관계자는 "이번 소비촉진 행사가 소비심리 위축과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전통시장 자매결연 기관은 물론 관내 유관기관, 사회단체, 지역 주민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영훈/기자

거제시 청년리빙랩, 거제 담은 동화 발간

거제시는 청년들의 무모한 도전 '2020년 거제시 청년리빙랩 프로젝트'에 선정된 단체 중 경남거제공동육아조합이 거제를 담은 동화책'몽돌이 집은 어디일까요?'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이 책은 거제시 남부면에 위치한 여차 몽돌 해변의 몽돌이가 가족을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이다.그 밖에도 거제를 대표하는 '거가대교','바람의 언덕', '구조라성'등 관광명소가 등장해 눈길을 끈다.경남거제공동육아조합은 경남도 유일 공동육아어린이집인 '똥강아지공동육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단체로 우리 사회의 문제를 발굴하고 실험하는 청년리빙랩 프로젝트에 참여해 최근 관광 트렌드의 변화, 거제 소재 동화의 부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동화책을 발간했다.이를 통해 시의 숨은 관광지를 발굴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도모했다.최무경 시정혁신담당관은 "우리 시에서 시행한 청년리빙랩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은 거제 청년들의 실험과 도전에 감사드리고 올해도 청년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청년 문화의 조성을 바란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여행이 자유롭지 않은 때에 이 한 권의 동화책으로 거제를 즐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양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호응'

양산시에서 농가의 농업기계구입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 중인 농업기계임대사업이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 해소, 경영비 절감에 효과가 커 큰 호응을 얻으며 농민의 영농 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사업으로 자리잡고 있다.2009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농가의 만족도가 높아 이용하는 농업인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으며 현재 트랙터, 농업용굴삭기 등 총43종 125대의 농업기계를 임대하고 있다.코로나19 장기화로 농산물 판매 수익과 농가 소득, 외국인 근로자 감소에 따른 일손부족 등 어려움을 겪는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 50%감면을 실시해 왔고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6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또 농업기계 운송 불편 해소를 위해 2020년 5월부터 농업기계 운송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임대농업기계 운송서비스 희망 농업인은 임대농업기계 사용 3일 전까지, 양산시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예약을 해야 한다.신청 절차가 완료되면 농업인은 임대농업기계를 원하는 작업 장소 인근의 차량진입 가능지역에서 편리하게 인수 받아 사용할 수 있다.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일손부족 해소 및 적기 영농추진을 위해 농업기계 수리·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전했다.

남궁영기/기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공동방제 약제 보급

영덕군농업기술센터가 2021년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생육초기 병해충 방제약제를 읍면 주민 센터를 통해 보급한다.보급 시기는 3~4월이며 영덕군 전체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특히 올해부터는 정부 보급 종 벼 종자가 소독되지 않고 농가에 공급됨에 따라 농업인의 어려움이 예상, 이를 해소하기 위해 종자소독제도 추가로 공급한다.이번에 공급하는 공동 방제 약제 중 종자소독제는 30℃ 이상의 물에 혼합해 24~28시간 침종을 통해 소독을 실시하면 되고 키다리병 등을 방제할 수 있다.육묘상 처리제는 묘판을 파종할 때 또는 이앙 당일 모판에 처리해 도열병, 문고병, 나방류, 멸구류, 노린제류를 방제할 수 있다.영덕군 농업기술센터는 이번 생육초기 공동방제 약제 보급과 함께 육묘상 처리제 농약 효과가 떨어지는 6월 중·하순과 장마 이후인 7~8월 드론을 이용한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2회 더 실시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영덕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농촌 고령화 대책 개발과 벼 재배 생력화 기술 개발 보급으로 지속 가능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노력하겠다 또, 영덕군 벼 병해충 공동방제 모델을 개발해 효과적인 방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전주시 시립도서관 대출 1위 '일의 기쁨과 슬픔'

아동·청소년 부문에서는 장은영 작가의 '으랏차차, 조선 실록 수호대'가 가장 많이 대출돼

지난 한 해 전주시 시립도서관 12곳에서 시민들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책은 '2020 전주 올해의 책'이었던 '일의 기쁨과 슬픔'과 '으랏차차, 조선실록 수호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전주시는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솔로몬'을 활용해 지난해 대출통계를 분석한 결과 성인도서 부문에 '일의 기쁨과 슬픔'이, 아동·청소년도서 부문에 '으랏차차, 조선실록 수호대'가 가장 많이 대출된 도서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2020 전주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이 2권의 책은 1년 동안 시민 독서릴레이와 독서토론 등 연중 펼쳐진 독서운동에 적극 활용됐던 것이 높은 대출량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성인 부문 1위인 장류진 작가의 '일의 기쁨과 슬픔'의 경우 20~30대 젊은 직장인들의 이야기를 다뤄 많은 직장인들의 큰 공감을 불러일으킨 책으로 작가의 실제 회사생활 경험이 녹아 있어 리얼리티가 살아있다는 평을 받았다.성인부문 2위에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일본 작가인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 선정됐다.또 SF소설 장르의 신예로 떠오른 김초엽 작가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 3위, 인문학의 스테디셀러가 된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가 4위를, 여행의 감각을 일깨우는 매혹적인 이야기인 김영하의 '여행의 이유'가 5위를 차지했다.이어 '당신이 옳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미움 받을 용기', '천년의 질문', '보건교사 안은영' 등이 차례대로 10위권 안에 들었다.아동·청소년 도서 분야의 경우 장은영 작가의 '으랏차차, 조선 실록 수호대'가 1위로 나타났다.

지역의 역사적 소재를 참신한 스토리로 엮은 이 책은 조선왕조실록을 지키기 위한 고군분투하는 백성들의 영웅적인 서사와 모험이 담겼다.이 분야 2위에는 출간 이래 베스트셀러 자리를 놓치지 않은 '아몬드'로 조사됐으며 3위에는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이, 4위에는 '추리 천재 엉덩이 탐정'이, 5위에는 '수상한 질문, 위험한 생각들'이 자리했다.특히 백희나 작가의 '알사탕'과 '나는 개다', '이상한 손님' 등 총 3권이 10위권 안에 들어 어린이 독자들의 높은 애정을 받은 것으로 평가됐다.이밖에 '페인트', '체리새우 : 비밀글이다'가 10위권 안에 포함됐다.이와 관련 전주시 시립도서관은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연중 대출 권수가 2019년에 대비해 38.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책 대출권수는 2019년과 대비해 38.5%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향후 시는 전자책과 맞춤형 서비스를 더욱 확충하고 오는 3월부터는 '전주시 독서마라톤 대회'와 '전주 올해의 책' 등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도 전주시 도서관을 사랑해주신 시민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더욱 더 편리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독서운동을 연중 전개해 책 중심 도시 전주로 우뚝 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송일/기자

'장수사과' 온라인 판매, 상생마케팅

장수군은 26일 서울시 상생상회와 공동으로 장수사과 소비촉진을 위한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한다.25일 장수군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비자 농산물 구매 트렌드가 비대면인 온라인 구매로 증가하고 있다.이에 따라 군은 '2021년 설맞이 장수사과 선물세트' 라이브 판매를 마련했다.이번 라이브커머스는 26일 오후 3~4시까지 진행되며 장수솔무사과, 윤슬사과 농가가 참여해 장수사과5㎏ 5만5,000원, 특5만원, 대 4만5,000원 등 시중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장수사과선물세트 300여박스를 도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판매에 참여하는 농가는 대를 이어 농사짓는 장수 대표 청년 브랜드로 제초제나 착색제, 비대제 등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사과이며 GAP인증, 저탄소인증, 가톨릭농민회 우리농 자주인증을 받았다.장수사과는 이미 사과재배에 적합한 기후와 조건을 갖춘 최적의 지형인 해발 500~700m의 고원분에서 자라며 높은 일교차와 풍부한 일조량, 게르마늄 토질 환경에서 생산돼 당도가 높고 육질이 단단해 전국에서 명품 사과로 통한다.방송은 상생상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상생상회 네이버 쇼핑라이브 채널, 네이버 쇼핑라이브 메인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된다.군 관계자는 "청정 장수에서 생산되는 장수사과를 생방송을 통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도농이 상생할 수 있는 이번 라이브커머스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곽승오/기자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서비스 제공

9개 분야, 35개 맞춤형 프로그램 추진

익산시는 취약계층 아동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시는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정을 대상으로 필수서비스와 맞춤형 서비스 등 9개 분야, 35개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분야별 살펴보면 필수서비스 5개 분야, 12종, 맞춤 서비스 4개 분야, 23종 등으로 아이들과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일부 프로그램은 비대면으로 추진된다.특히 올해는 드림스타트 사업대상자 밴드를 개설해 민·관, 민·민의 쌍방향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다양한 복지정보 공유, 사업 홍보, 욕구 조사 등을 추진한다.더불어 예산 가운데 3천여만원 상당의 맞춤형 사업을 드림 가족이 직접 제안한 내용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드림스타트 관리 대상자는 212가구, 314명으로 정기적 방문을 통해 사례관리를 진행 중이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이 없도록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대상 아동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있다.정경숙 아동복지과장은 "최근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아이들과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수요자 중심의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과 지역 내 아동 관련 기관 간 보호 체계를 통해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이선수/기자

익산시, '시민생활 안정·경제 활성화' 최우선 추진

2022년도 국가예산 8500억원 목표

익산시가 올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목표로 시책 추진에 나선다.기획행정국은 25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위기를 돌파하는 데 초점을 맞춤 올해 업무추진 방향과 주요 사업을 발표했다.우선 한국판 뉴딜 등 정부 정책과 연계한 신규사업을 발굴해 내년도 국가예산 최대 목표치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내년도 국가예산은 올해의 8천42억원을 뛰어넘는 8천500억원을 목표로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와 공조체계를 구축해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다.정책 추진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등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과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앞서 시는 올해 국가예산 8천42억원 확보했고 시 재정도 1조 4천907억원 규모로 확대돼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이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 신속 집행을 적극 추진한다.시는 지역 경제 상황을 감안해 올해 편성된 재정사업들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단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대상의 60%에 해당하는 4천700억원 집행을 목표로 재정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한다.아울러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과 철저하고 공정한 세원관리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탈루·은닉세원에 관한 정확한 세무조사와 체계적인 체납세 관리를 통해 자주 재원 확충에 힘쓸 예정이다.올해 체납징수율을 43%로 상향 설정해 분기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함과 동시에 고액체납자와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조치,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 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개인회생을 지원하는 등 시민 중심·납세자보호 중심의 징수활동을 전개한다.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지출업무로 신뢰받는 회계행정 추진과 공유재산, 물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선다.재정 신속집행을 위해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자금을 집중배정해 신속한 지출을 유도함은 물론 지역업체와 지역생산품을 우선계약해 지역상권과 지역업체 보호에 나선다.이밖에도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인재교육을 지원하는 등 명품교육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특히 옛 모현동 행정복지센터를 평생학습관과 부설 문해교육지원센터로 리모델링해 생활권내 평생교육 여건을 마련함과 동시에 다양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한다.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인구정책 4개분야, 95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행·재정적 역량을 결집해 시민의 자긍심과 행복지수를 끌어올려'살맛나는 익산 다이로움 익산'을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강태순 기획행정국장은 "정치권, 전라북도, 중앙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시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

이선수/기자

전 국민 73.0%, "앞으로 완주군 방문할 의향이 있다"

응답자 62.5%는 "완주군, 매력적인 관광자원 갖고 있다" 긍정 답변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된 완주군에 대해 전 국민의 상당수가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며 70% 이상은 방문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26일 완주군이 내놓은 '완주 와일드푸드 축제 및 관광정책 발전방안 컨설팅'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피디엠코리아는 전북지역 200명과 전북 외 지역 300명 등 총 500명을 대상으로 작년 10월 중순에 1주일 동안 전 국민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에 나섰다.그 결과 "완주군이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65.2%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이 중에서 13.4%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는 등 완주군의 관광자원 인지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보통이다거나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상대적으로 낮았다.앞으로 완주방문 의향을 묻는 질문에도 "그렇다"는 답변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전 국민 5명 중 1명가량은 "앞으로 완주를 꼭 방문하고 싶다"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관심을 끌었다.주변 사람에게 완주관광 추천의사를 물어본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56.0%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시각은 7.8%에 그쳤다.전 국민 대상 완주군 방문경험에 대한 조사에서는 전체의 51.4%가 방문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나머지 48.6%는 방문경험이 없다에 체크했다.완주군 방문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에서 방문 목적을 물어본 결과 관광지 방문, 맛집 탐방, 축제 참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가족이나 친지 방문 혹은 등산 등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반면에 완주방문의 동반자 특성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0.3%가 가족·친지들과 함께 완주를 방문했다고 답했고 연인·친구, 혼자 등의 순이었다.결국 수도권 등 타 지역 관광객들은 주로 완주군의 관광지나 맛집 탐방을 위해 가족이나 친지들과 함께 방문하고 있는 셈이다.완주군의 대표 관광지로는 대둔산 도립공원, 송광사·위봉산성 등을 포함한 소양 오성한옥마을 일대, 고산 자연휴양림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방문일정은 1박2일이 44.7%로 가장 높았고 당일 2박3일 등의 순이었다.완주군의 한 관계자는 "올해와 내년도 '완주방문의해'를 맞아 전 국민의 70% 이상이 완주를 방문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완주 알리기 등 집중 홍보를 통해 많은 사람이 실제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하은/기자

담양군, 비대면 걷기 활성화 사업 모바일 걷기앱 '워크온' 운영 시작

애플리케이션 '워크온' 개발업체 ㈜스왈라비와 업무협약 체결

담양군은 22일 모바일 걷기앱 '워크온' 개발업체 ㈜스왈라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이 제약이 생기면서 부족해진 신체활동 및 증가하는 비만율을 개선하고자 걷기앱을 통해 올바른 걷기와 일상생활 속 자기관리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추진됐다.군은 공식커뮤니티를 개설해 2월 중 모바일 걷기앱 '워크온'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매월 1회 챌린지를 통해 목표걸음 달성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걷기 실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예정이다.가입은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 '워크온' 앱을 설치하고 담양군 공식 커뮤니티를 선택한 후 가입하면 된다.또한, 군은 신체활동사업 일환으로 읍·면 중심 총 49개 건강걷기 동호회를 운영하며 참여자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올해는 워크온 사업과 함께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김순복 보건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건강을 유지와 면역력을 기르는 일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걷기 습관형성 등 군민 건강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홍곤/기자

완주군, 사회적기업으로 일자리 창출 견인

소셜굿즈 2025플랜 통해 2배 이상 증가…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지속

완주군의 사회적기업이 2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보이면서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25일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군 사회적경제 조직은 협동조합 157개, 사회적기업 25개, 마을기업 13개, 자활기업 5개로 총 200개가 활동하고 있다.협동조합은 전국 군 단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기업은 2018년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완주군은 지난 2018년부터 지역과 주민의 요구에 기초해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완주소셜굿즈 2025플랜'을 민선7기 핵심공약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각 부문별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합, 체계적으로 육성하면서 지역자립과 순환경제를 완성하고자 하는 미래 혁신 프로젝트다.그 결과 총 2018년 11개소였던 사회적기업은 2019년 17개소, 2020년 25개소로 증가했으며 업종별로는 교육서비스업 6개소 제조업 2개소 사회복지서비스업 2개소 건설업 1개소가 증가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증가했다.또한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상황 속에서도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300여명을 포함한 사회적 일자리 490여개 창출과 더불어 53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완주군은 앞으로도 사회적가치 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건실한 사회적기업들을 발굴·육성해,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특히 사회적경제 허브 공간 조성을 위해 구 삼례중학교를 교육청으로부터 매입해 올해 안에 사회적경제 조직 입주, 협업, 공유, 혁신공간인 완주소셜굿즈 혁신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박성일 완주군수는 "사회적경제는 포용적 성장을 기반으로 15만 자족도시, 으뜸도시 완주를 만들기 위한 동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관협치를 통해 일상에서 주민들이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사회적기업이란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형태, 조직의 목적, 의사결정구조 등이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정한 인증요건에 부합해야 하며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김광수/기자

무안군, 보건소 이전신축공사 설계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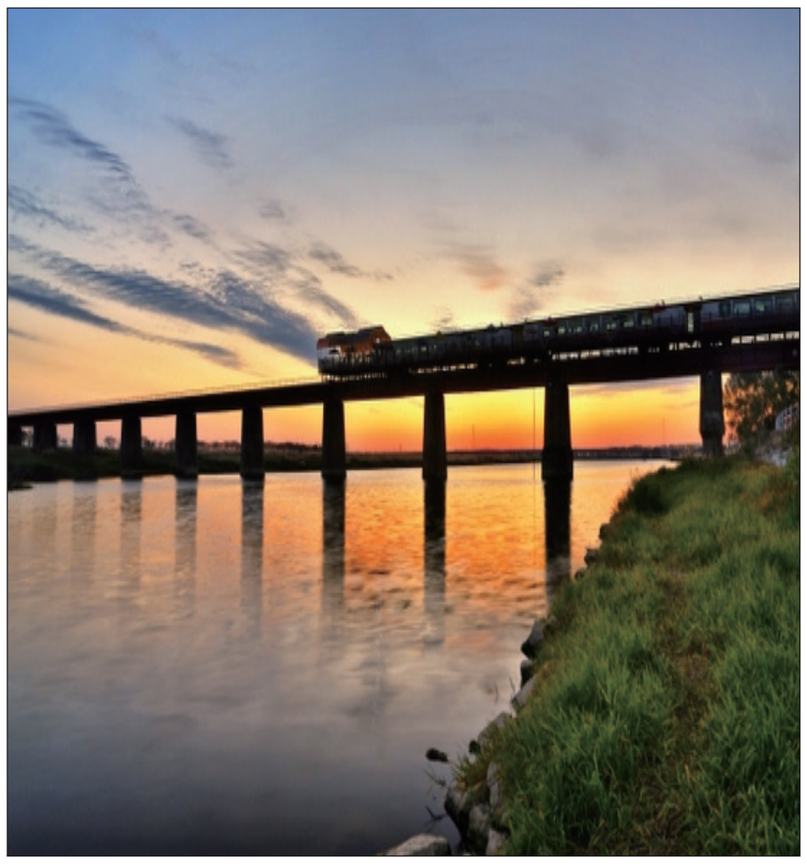
무안군은 지난 22일 군청 상황실에서 보건소이전신축추진위원회 위원과 관계공무원, 설계용역사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도무수유건축사무소 관계자로부터 보건소이전신축공사용역 일정, 건축개요, 설계개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신축 보건소는 무안읍 구 전통시장 부지에 연면적 11,189㎡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로 건립되며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재활치료실,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은 지난해 5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공모를 실시해 당선작 선정 후 용역에 착수해 10월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기본설계 심의를 완료했으며 2022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에게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설계 및 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기석/기자



친환경차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 속도 낸다

빛그린산단 내 선도기술지원센터,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5월 준공

광주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친환경자동차 선도도시를 조성하고 지역 자동차산업 경쟁력 확보와 연관된 전장부품 기술 등을 융합 발전시키는 자동차 부품산업 구조 고도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사업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자동차 전용산단인 빛그린산업단지에 총 3030억원을 투입해 기반 구축, 기술개발, 기업지원 등 미래형 자동차산업을 선도할 생태계를 조성하는 내용을 시행된다.

현재 광산구 삼거동 빛그린산단 연구용지에 핵심 기반시설 건립 공사가 5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특히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만906㎡ 규모의 선도기술지원센터와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4889㎡ 규모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한다.선도기술지원센터는 179종의 기술개발 장비를 구축해 부품기업 수요에 맞춰 친환경·스마트 부품 개발을 지원하고 미래차 기술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기업간 교류의 장으로 창업보육, 사업다각화, 해외마케팅, 인력양성 지원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광주시는 이번에 건립되는 기반시설이 향후 빛그린산단의 랜드마크가 되고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의 기술개발과 생산혁신을 촉진시켜 친환경자동차 부품산업 구조 고도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앞서 광주시는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의 하나로 부품기업 주관 아래 35개의 기술개발 과제를 시행해 현재 15건의 사업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고용창출 461명, 66억 매출 증대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더불어 기술개발이 진행 중인 20개 과제는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조기에 사업화가 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주관기관인 그린카진흥원과 참여기관은 먼저 도입된 장비를 이용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동차부품 생산·전문·예비 인력 847명을 양성했다.지난해 8월 개소한 그린카진흥원 내 공동훈련센터에서는 고용노동부와 지역 부품기업 61곳이 협약을 맺고 기업수요 전문인력 280명을 배출했으며 올해는 500명 이상을 양성할 예정이다.손경종 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자동차 관련 신규 투자 유치 활성화와 미래자동차산업 경쟁력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며 "자동차중심 융합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윤/기자

전동평 군수, 영암군 코로나19의 종식을 향해

지난 주말 총 828건 검사, 자가격리 중 확진자 1명

영암군은 지난 1월 24일 코로나 19 관련 확진자 1명이 자가격리 중에 추가 발생 해 1월 25일 10시 현재 기준, 올해 4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군의 코로나 확산 상황은 안정권으로 접어들어가는 추세다.군은 주말에도 보건소와 임시선별진료소를 통한 검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주말에는 총 828건의 검사 를 실시해 올해 1월 14일 이후 총 6,852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1월 23일 실시한 외국인 근로자 검사에는 전부 음성 판정이 나왔으며 1월 25일에 실시된 시종면 임시 선별진료소, 신북면 임시 선별진료소 실시된 검사 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검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한편 군은 주말을 비롯해 매일 박종필 영암부군수 주재로 코로나 19 상황 관련 대책회의를 실시해 관련 현황 및 대책에 대한 보고 및 점검을 이루어나가고 있다.또한 보건소에 대해 검체체취 입력, cctv 분석, 자가격리자 모니터리 등 각 분야에서의 행정력을 지원함과 동시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중단, 코로나 19 대응에 관련 인력을 모두 집중하고 있다.농어촌 복합체육센터 선별진료소 운영 및 읍면사무소 주말 비상근무 등 더욱 원활한 조치 및 대응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확진자 발생현황 및 주요 동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해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더불어 각 읍면 자율방재단과 함께 터미널을 비롯해 다중 밀집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후속 방역 및 점검 조치에 철저를 기해 각종 종교·체육시설 및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1월 22일부터 31일까지 관내 전통시장 5개소에 대해 임시휴장을 실시하는 등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전동평 영암군수는 "군의 확산 상황이 안정화되어가면서 관내 코로나 19의 종식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듯 하다"며 "코로나 19 상황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하며 군민 여러분도 준수, 식당·카페에서의 외부모임 자제 등에 계속해서 철를 기해 하루빨리 모두가 즐거운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광주 서구, '지속가능발전'도시로 도약'시동'

지속가능발전 2030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출범

광주 서구가 2030년 서구 지속가능발전 비전 '자연과 함께 사람이 성장하는 행복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행보에 본격 나섰다.지난 22일에는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 중 최초로 분야별 전문가, 주민대표 등 26명의 위원이 참여한 가운에 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서구 지속가능발전 2030 기본계획을 심의했다.이날 회의는 위원회 구성 후 첫 번째 열리는 회의였으며 2030년까지 서구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전략, 17개 추진과제, 75개의 지표를 확정했다.

서구는 2015년 UN 총회에서 기후변화 대응, 건강과 웰빙 등 17개 지속가능발전 목표 선언으로 본격화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세계적 흐름과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 국가' 라는 국정방향에 발맞춰 2020년부터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구정에 접목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월 기획실내 지속가능발전 전담팀 신설을 시작으로 8월까지 전문가, 공무원 등 총 7명으로 지속가능발전 민·관 협업 TF팀 구성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5월부터 12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친 TF팀 회의, 2,045명 주민의 설문조사와 각계 각층 주민 67명의 주민참여단 활동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서구 지속가능발전 2030 기본계획이 마련되어 이날 회의를 통해 확정됐다.올해 서구는 기본계획의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2년 주기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반기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되 특히 5월에는 서구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비전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아울러 주민들에게 지속가능발전 가치 홍보와 참여 붐 조성을 위해 비전다짐 SNS 챌린지, 홍보영상 제작, 콘텐츠 공모전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서대석 서구청장은 "코로나19, 기상이변 등 현재의 위기상황 속에서 생태적 안정성을 중시하고 경제·사회·환경의 조화와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 정책 도입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구정의 나침반 삼아 2030 서구 비전 '자연과 함께 사람이 성장하는 행복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윤/기자

영암군, 노후된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지원사업 신청접수

2월 3일까지, 업소당 최대 5백만원까지

영암군은 코로나19로 심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이용객 편의 증진 및 쾌적한 음식 문화 이미지 조성을 위해 시설개선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지원 자격은 신청 마감일 기준 관내에 영업신고 6개월이 지난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자 주소가 영암군에 있어야 하며 최근 1년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한다.이번 시설개선지원사업은 입식테이블을 교체하거나 화장실·주방시설개선, 저온저장고 설치 등 음식점 내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지원사업이다.사업비는 군비 50백만원으로 영업자가 시설개선자금의 50%이상 부담하는 조건으로 진행되며 업소당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한다.군은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사업에 관해 자세히 게시했으며 사업을 희망하는 업소는 2월 3일까지 공고문을 확인한 후 해당서류를 영암군청 여성가족과로 우편 및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남출/기자

강진 농산업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한 딸기가공품 인기

강진에서 생산·가공한 딸기잼, 딸기청 납품 문의 줄이어

강진군이 운영하는 농산업가공지원센터에서 만든 딸기가공품이 수도권 제과업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강진 농산업가공지원센터를 이용해 다산명작협동조합이 제조한 딸기잼과 딸기청은 일조량이 많은 강진에서 자란 당도가 높은 딸기를 원료로 직접 가공·유통에 참여해 딸기 함량을 높이고 과육이 살아있는 제품이다.이 제품은 작년 1월 프렌차이즈 프랜차이즈 업체인 카페 브레댄코와 MOU를 체결하고 전국 60여 개 매장에 매월 800kg 이상 납품하고 있다.또 신라명과와 제과 명장 김영모과자점 등 여러 업체에서도 납품을 의뢰하고 있어 강진의 대표적 특산품인 딸기의 새로운 소비처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이승옥 강진군수는 "강진의 대표적 농산물인 딸기를 비롯한 다양한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생산 및 기술지원을 통해 군민의 농업소득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진 농산업가공지원센터는 연면적 258㎡ 규모의 지상 1층 건물로 국비 5억원을 포함 총 7억원을 투입해 농산물 가공장비 36종 40대를 구비해 분말, 음료, 잼 등 제품 생산이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김장길/기자

행심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 인용재결서 송달

양양군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피청구인이 2019년 9월 16일 청구인에 대해 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알림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주문의 인용재결서를 최종적으로 전달 받았다고 26일 밝혔다.앞서 군은 2019년 9월 원주지방환경청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한 것과 관련 절차적인 하자와 실체적 하자의 부결사유에 대해 반증자료를 수집·분석, 2019년 12월 11일에 이 사건 부동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현지조사와 구술심리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29일 9명의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들이 모여서 양 당사자 입장과 전문가 의견 청취에 이은 장시간 논의 끝에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의견 통보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론을 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가 양양군과 원주지방환경청 양측에 통보됨에 따라 곧바로 재결의 취지에 맞는 원주지방환경청의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처분'이란 '특정사항에 대해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처분에 해당하는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통보를 해야 한다.하지만원주청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추가 보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갈등이 예고된다.

군 관계자는 원주지방환경청이 행정심판법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결서를 받고도 '지체 없이 처분해야 한다'는 규정을 따르지 않고 처분성이 없는 추가 보완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심판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의 취지에 맞도록 조건이 붙은 "부관 있는 행정처분" 즉 "조건부 동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동희/기자

양양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주민제안 사업 큰 호응

오는 2월 10일까지 공모 접수. 총예산 3억1천8백만원

양양군이 올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을 다음달 2월 10일까지 신청·접수받는다.군은 2019년부터 주민화합 및 마을자치기능 향상으로 주민주도형 자립형 마을 육성을 통한 행복하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해 사업 공모를 통해 16개 마을공동체를 선정, 2억8천만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했다.

마을이 안고 있는 문제를 주민 스스로 발굴·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로서의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주민주도형 자립형 마을을 육성하는 계기가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다.또한 코로나19 상황으로 활동이 제한되어 사업내용이 일관되고 단순화 된 부분은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군은 지난 7일 전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열고 청곡2리 마을 외 3개 우수마을을 선정하는 한편 지난 19일 시상식을 갖고 4개 마을공동체에 시상금을 전달했다.올해는 3억1천8백만원의 예산으로 주민 제안에 의한 공모를 통해 선정된 마을공동체에 1개 공동체당 2천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시설 설치 등 하드웨어 사업은 최대한 배제하고 프로그램 및 활동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며 동일 사업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거나, 마을안길 포장 등 주민숙원사업, 주민 참여 없이 현금성으로 추진하는 사업 등은 제외된다.또, 소득 창출 사업은 타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청 금액의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이번 공모사업을 희망하는 마을공동체는 군청 홈페이지 공모전 서식을 다운받아 사업신청서 공동체소개서 사업계획서를 구비해 읍면사무소 및 군청 자치행정과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김영근/기자

홍성군, 보훈선양사업 중점추진으로 충절의 고장 위상 높인다

충절의 고장 홍성군이 국가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보훈선양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보훈문화 확산에 앞장선다.우선 군은 참전유공자 및 그 참전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21억 4,400만원을 투입해 참전유공자 수당지급을 확대한다.월남참전유공자 수당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 생신축하금을 신설해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밖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배우자 수당을 지원하며 유공자 복지증진에 힘쓸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유공자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사회적 예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3억 5,400만원을 투입해 국가보훈단체 운영과 충령사 등의 현충시설을 관리한다.특히 충령사를 방문하는 어르신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완경사로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며 9개 보훈단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1억 8천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군은 지난 해 7천만원의 예산으로 보훈회관 기능보강을 실시해 흩어져 있던 3개 보훈단체 입주를 추진해 보훈가족에 대한 편의를 증진했다.홍성군 관계자는 "국가유공자분들의 숭고하고 헌신적인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음을 잊지 않고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다해 보훈문화를 조성하며 충절의 고장 홍성의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횡성군보건소 저소득층 검진사업 위탁협약 체결

횡성군보건소는 26일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도지회, 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도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주민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추진한다.이번 협약은 유병율이 높은 질환의 조기검진으로 건강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의료취약지역에 한 차원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도지회와는 골다공증검진, 갑상선검진, 동맥경화검사, 심뇌혈관계질환 검진을 협약하고 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도지부와는 전립선질환검진을 협약하며 국가 암 조기검진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검진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인 횡성군거주 만30세 ~ 80세 지역주민이며 국가암검진 기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유방암, 자궁경부암의 검진시간을 늘려 의료접근성도 개선한다.또한 검진 결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합병증을 유발하는 질병과 골다공증, 전립선질환 등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병은 통합건강증진부서 또는 2차 병원진료를 의뢰해 관리할 예정이다.태현숙 횡성군보건소장은 "저소득층검진사업 업무협약을 통해 수준 높은 검진으로 질병의 예방 및 치료는 물론 국가암 조기검진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옥천군 자율관리어업공동체 경사났네

자율관리어업 유공 개인 수상 성민영 씨, 단체수상 향수자율관리어업공동체

2020년 내수면어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 옥천군 관내 어업인과 자율관리어업 공동체가 해양수산부 장관상을 수상했다.이 상은'자율관리어업 활성화 유공'부문 장관상으로 25일 김재종 옥천군수가 전수했다.

수상자는 개인수상은 동이면 성민영 씨와 단체 수상은'향수자율관리어업 공동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성민영 씨는'금강유원지 자율관리어업공동체'회장직을 맡으면서 유어 질서와 수질보전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며 적극적이고 완벽한 봉사실천으로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

또한, 단체 수상자인 '향수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자율관리어업 모범공동체 평가위원회에서 전국 311개 공동체 중 3위를 수상해명실공히 옥천군 내수면어업 발전에 큰 힘을 불어넣어 줬다.향수자율관리 어업공동체 회장인 손승우씨는 강한 리더십으로 내수면 어업계원의 결집과 자율관리어업 육성발전에 기여했으며 2020년 외래어종 구제, 어장 환경정화 활동, 토종붕어 10만미 방류를 하는 등 깨끗한 대청호 만들기와 어족자원보호에 성과를 보여줬다.옥천군 관계자는"2021년에도 자율관리어업 6개공동체와 더불어 유어질서 확립과 내수면어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옥천군, 대청호 일대'생태관광지역' 지정 추진

옥천군이 대청호 일대를 대상으로'생태관광지역' 지정을 추진한다.군은 대청호 안터지구를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지난해 말 충북도에 후보지 추천을 신청했으며 도는 이달 중으로 환경부에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사업대상지인 대청호 안터지구는 안내면 장계리와 옥천읍 오대리, 동이면 석탄리, 안남면 연주리를 잇는 지역으로 전체 면적은 43㎢다.이곳은 1981년 대청댐 준공 후 40년간 각종 개발과 환경규제 지역으로 묶여 천혜의 자연생태와 수려한 경관을 보존하고 있다.특히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수달과 삵이 서식하고 있으며 환경부 천연기념물인 운문산반딧불이가 서식하는 국내 5곳 중 한 곳이다.지역 주민들은 지난 10년간 호수 주변에 농사를 짓지 않기로 협의하는 등 청정 생태마을 조성에 힘썼다.이와 함께 반딧불이 서식지 매입을 통해 서식환경을 영구 보존하고 안터마을 반딧불이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생태계 보존을 위한 각종 노력을 기울여왔다.

군은 지역 주민과 협력을 통해 생태계 복원 및 습지, 반딧불이 놀이터 등 야생동식물 서식지 보전과 생태축 연결로 생물서식지 학습과 체험이 가능한 생태관광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환경부는 이달까지 지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면·현장 평가와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오는 5월 신규 생태관광지역을 결정한다.최종적으로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면 환경부로부터 운영비 재정 지원과 에코촌·생태관광센터 시설 설치, 자연환경 해설사 배치 등이 지원된다.군 관계자는 " 대청호 일대를 습지, 반딧불이 놀이터 등 야생동식물 서식지로 조성해 생태복원과 생태관광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며 "수질보전대책지역으로 규제가 심한 옥천군을 관광1번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고 군민의 수익을 보장해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횡성군-제8전투비행단, 군용기 소음 피해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횡성군과 제8전투비행단이 1월 26일 오후 3시 횡성군청 대회의실에서 군용기 소음 피해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이번 협약에는 장신상 횡성군수와 환경관리과장, 김영채 제8전투비행단장 및 감찰실장, 공보정훈실장, 계획처장 등 관계자 6명이 참석한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제8전투 비행단이 군용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방지와 소음 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횡성군이 소음 저감 대책 협조 및 주민 홍보를 진행하는 것이다.이와 더불어 양기관이 함께 군용기 소음 저감을 위한 민·관·군 공동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며 기타 세부 사항은 상호 합의해 결정하기로 했다.한편 블랙이글스는 기지별 순환 이동 훈련하고 군용기 이·착륙 및 장주비행 경로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며 이륙 상승각 조정으로 소음 영향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장신상 횡성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실효성 있는 소음 저감 대책이 마련되어 군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단양군, 2021년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자 모집

충북 단양군은 지역 내 중소기업의 미혼 청년근로자와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2021년 충북행복결혼공제 신규 참여자 6명을 모집한다.지난 25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 중인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미혼 근로자의 결혼장려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2018년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으며 지역 청년들의 결혼자금 부담을 줄이고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와 청년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 중소기업 미혼 근로자 또는 농업인으로 사업 기간 결혼과 5년 근속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사업에 참여한 청년이 5년간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함께 적립하는 방식으로 원금과 이자를 더한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또한, 법인 기업은 35~47%, 개인 기업은 31~63%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근로자 기본형, 근로자 정부지원형, 농업인형 등 3가지 유형이 있으며 근로자 기본형은 근로자가 5년간 1800만원을 적립하면 지자체와 기업이 3000만원을 지원해 만기 때 원금 480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기업의 부담을 줄이고자 지난해 처음으로 선보인 근로자 정부지원형은 매달 근로자 30만원, 국비 18만원, 지자체 22만원, 기업 10만원을 매칭 적립하며 농업인형은 매달 본인이 30만원, 지자체가 30만원을 매칭 적립해 5년 뒤 3600만원과 이자를 받는다.군 관계자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미혼 청년들의 결혼유도를 통한 출산율 제고로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할 수 있고 청년근로자 장기근속을 통해 기업체 인력난 해결과 농업인 복지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천안시, 태조산공원 재해복구공사 착수

항구적 복구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친환경적 여가·휴식공간 제공

천안시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유량동에 위치한 태조산공원의 항구적 복구를 목표로 태조산공원 재해복구공사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 8월 3일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청소년수련시설 침수 및 진출입로 파손 등 피해를 입은 태조산공원은 과거에도 3차례의 수해가 있었던 곳이다.이에 시는 기존 복개방식의 원상복구보다 수해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개거방식의 항구적 복구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비 1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1억원 투입으로 기존 공원 내 복개된 도로를 조경석을 활용한 개거수로로 신설해 국지적 집중호우로부터 치수적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또 근린공원의 특성에 맞춰 태조호의 물을 신설수로의 유지용수로 공급해 행락철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식재를 통해 자연과 사람이 어울릴 수 있는 친환경적인 여가·휴식공간을 조성한다.태조산공원 재해복구사업은 1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월 중 착공에 들어가 우기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시는 태조산공원 내 산림레포츠시설 사업도 진행 중이다.사업비 60억원을 투입해 곡선형활강레포츠, 공중네트시설, 청소년용과 어린이용 숲모험시설을 설치한다.산림레포츠시설은 올해 내에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계약심사 후 4월 중 사업에 착수해 연내 완료예정이다.박상돈 천안시장은 "이번 공사를 통해 재해예방뿐만 아니라 태조산공원을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자주 찾을 수 있는 천안 제1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겠다"며 "착공과 동시에 수로를 먼저 개설해 우기 전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예산군 추사고택, 추사관련 자료 및 유물 기증·기탁자 모집

추사 유물 이외 교류 인물 유물까지 업적 선양 확대 기대

예산군은 추사 김정희 선생과 관련된 역사, 학문, 예술적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을 기증, 기탁 받는다고 25일 밝혔다.특히 추사고택은 추사 김정희 유물 이외에도 추사와 교류했던 인물들의 유물까지 기증, 기탁을 받아 다양한 인물들의 업적 선양에도 나설 방침이다.추사기념관은 2008년 개관 당시 추사와 가문의 인물들이 쓴 제문, 어사 묵, 편지등을 용산 참판공 직손 종 회장 김광호 선생에게 기증받았으며 2019년에는 청련시경 현판을 심훈 기념사업회 이사장이자 심훈 가 종손인 심천보 선생에게 기증받은 바 있다.또한 지난해에도 추사 관련 총 6점의 유물들이 기탁되는 등 다양한 유물들이 추사고택으로 전해지고 있다.

추사고택 관계자는 "기증의 경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기증자가 원할 경우 기증유물 평가액의 2할 이내 보상을 할 수 있다"며 "기탁의 경우 5년씩 협의를 통해 군에서 보관하고 학술, 연구, 전시 등에 활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보령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2월 1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보령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개량, 빈집정비, 슬레이트처리 등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지역의 무주택자 또는 노후 불량 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 주민이나 귀농 · 귀촌하려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연면적 150㎡ 이하로 건축할 경우 토지구입비를 포함해, 신축 · 개축 · 재축 · 대수선은 최대 2억원, 증축 · 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까지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융자금액은 사업실적 증명 가능한 주택건축비 범위 내에서 대출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금융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와 규모 등을 고려해 1동 당 200만원 범위 내에서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슬레이트처리사업은 주택부지 내 지붕재 또는 벽체가 슬레이트로 된 주택 및 부속 건물의 슬레이트를 철거 및 처리하는 사업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취약계층 등우선지원가구는 전액 지원하며 일반가구는 1동당 최대 344만원을 지원한다.지붕개량사업은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1천만원 한도내에서 일반가구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200㎡이하 비주택을 대상으로 전액 지원하는 비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도 추진한다.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희망자는 오는 2월 1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3월 중 대상자를 확정해 본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다만 농촌주택개량사업, 슬레이트처리사업은 시행지침이 개정 중으로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고정화/기자

서천군, 2021년 청년동아리 육성사업 참여자 모집

서천군지속가능지역재단이 지역 청년들의 취·창업과 연계한 동아리를 육성함으로써 청년 지역 정착 기반을 조성하고자 2021년 서천형 청년동아리 육성사업을 추진한다.재단은 이달 25일부터 12일간 공고를 거쳐 2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 참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통해 최종 5개의 청년동아리를 선정해 동아리당 최대 200만원까지 활동비를 지원한다.

이번 청년동아리 육성사업은 관내 거주하고 있는 청년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자율적인 동아리 활동을 하고자 하는 청년 동아리를 대상으로 한다.단, 단순 취미활동, 친목도모, 일회성 행사, 정치, 종교활동을 위한 동아리나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타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동아리는 서천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한 후, 서천군지속가능지역재단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고정화/기자

예산군 추사고택, 추사관련 자료 및 유물 기증·기탁자 모집

예산군은 추사 김정희 선생과 관련된 역사, 학문, 예술적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을 기증, 기탁 받는다고 25일 밝혔다.특히 추사고택은 추사 김정희 유물 이외에도 추사와 교류했던 인물들의 유물까지 기증, 기탁을 받아 다양한 인물들의 업적 선양에도 나설 방침이다.추사기념관은 2008년 개관 당시 추사와 가문의 인물들이 쓴 제문, 어사 묵, 편지등을 용산 참판공 직손 종 회장 김광호 선생에게 기증받았으며 2019년에는 청련시경 현판을 심훈 기념사업회 이사장이자 심훈 가 종손인 심천보 선생에게 기증받은 바 있다.

또한 지난해에도 추사 관련 총 6점의 유물들이 기탁되는 등 다양한 유물들이 추사고택으로 전해지고 있다.추사고택 관계자는 "기증의 경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기증자가 원할 경우 기증유물 평가액의 2할 이내 보상을 할 수 있다"며 "기탁의 경우 5년씩 협의를 통해 군에서 보관하고 학술, 연구, 전시 등에 활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세종소방본부, 생명 구한 영웅 41인 선정

차량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동료 생명 살린 일반시민 4명 수상 영예

세종소방본부가 발 빠른 대처로 응급상황에 놓인 시민들의 생명을 구한 영웅 41인을 선정했다.세종소방본부는 최근 '2020년도 하반기 하트·브레인·트라우마 세이버 심의회'를 열고 시민 생명을 구한 구급대원, 일반인 41명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하트세이버는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살린 경우, 브레인세이버는 뇌졸중 환자 등 뇌 기능 손상을 최소화한 경우를 의미한다.

트라우마세이버는 중증외상환자의 생명유지·후유 장애를 저감 시킨 경우로 하트·브레인·트라우마세이버 모두 응급상황에 놓은 환자의 생명을 살린 이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칭호다.소방본부는 이번 심의에서 하트세이버 10명, 브레인세이버 18명, 트라우마세이버 13명을 선정했으며 세이버 인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다.세종소방서에 재직 중인 강상모·김주일·이종근 구급대원은 지난해 하트·브레인·트라우마세이버 3개 분야에 동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뿐만 아니라 올해는 지난해 부강면에서 체계적인 심폐소생술로 같은 직장 동료를 구한 일반인 4명도 하트세이버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심정지 환자에게 4분 이내 응급처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모범사례가 됐다.세종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년 간 구급대가 이송한 심정지 환자는 총 98명으로 이 중 16명을 소생시켰으며 이는 전국 평균 소생률 10.8%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소방당국은 시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교육은 가까운 소방서 누리집이나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김영근 대응예방과장은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의 신속한 심폐소생술과 전문성을 갖춘 구급대원의 현장처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심정지는 언제 누군가에게 어떻게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올바른 대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공무원 출신 시인 김동옥 공무원 문학상 대상 수상

김동옥 시인이 지난 23일 제17회 공무원 문학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제17회 공무원 문학상은 인간의 내면세계에 대한 깊이 있는 묘사와 창조적 성찰로 감동을 엮어 낸 시집 '안개꽃 별이 되어'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허형만 심사위원은 김동옥 시인의 작품 중에서 '버려진 의자'라는 시를 두고 "시 안의 '늙은 의자'는 시인이 자신을 투영한 물체이자 존재 가치를 상실한 생명체이다"며 "시인의 폭넓은 묘사력과 상상력의 힘을 잘 보여 주고 있다"고 호평했다.

김동옥 시인은 수상 소감으로 "30여 년의 공직 생활을 마감하고 퇴직 이후 새롭게 걸어가야 할 '진정한 나의 삶, 고유한 나의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 항상 생각해 왔다"며 "아직 정확한 답을 내리진 못했지만, 비유하자면 나무를 키우고 그 곁에서 자신의 영혼을 차곡차곡 쌓아 가는 일이 가장 자신다운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시상으로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공무원 문학상은 전·현직 공무원으로서 문단에 공식 등단한 사람들의 문학 공동체인 한국공무원문인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다.김동옥 시인은 1984년 장흥별곡문학동인회 창립 멤버로 활동해 오면서 2003년 계간 '공무원 문학' 시 부문 신인상, 2018년 종합 문예지 '문예운동' 봄호 시 부문으로 등단했다.

시집으로는 '안개꽃 별이 되어', 공저 '시의 뜨락 시의 향기', '산길, 그리고 그리움', '제암산악회 20년사 엮음' 등이 있다.김동옥 시인은 전남문인협회, 한국문인협회 장흥군지부, 청하문학 광주전남지부 및 장흥별곡문학동인회 회원, 한국공무원문인협회 이사로 활발한 활동을 해 오고 있으며 장흥군 안양면장 및 장평면장을 역임한 전력이 있다.

김장길/기자

김춘숙 부안군생활개선회 전 회장 한국생활개선 전라북도연합회 수석부회장 당선

한국생활개선전라북도연합회는 지난 21일 전라북도 농업인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2021~2022년까지 16대를 이끌어갈 임원 선거를 실시했다.이날 선출된 임원진은 도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1명, 감사 2명으로 부안출신 김춘숙 회장이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됐다.

김춘숙 회장은 1995년 생활개선회원으로 시작해 부안군연합회 사무국장 4년 회장, 부회장 8년, 회장 4년을 역임해 리더로써 역량을 인정받아 16대 전라북도연합회 수석부회장에 당선됐다.당선된 김춘숙 회장은 "생활개선회원으로서 많은 교육을 통해 여성리더의 역량강화와 자기발전, 또한 자긍심을 갖고 농촌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 주역이 되도록 차별화되는 단체로 거듭나는데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강성선 소장은 "수석부회장에 당선된 것을 축하드리며 생활개선회가 열심히 활동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 지원과 함께 투철한 봉사활동과 사명감을 가진 회원들이 농촌에 활력을 주고 매력있는 부안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조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태/기자

딸 첫돌 맞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젊은 부부 화제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 초등학교에 다닐 때까지 이웃을 위한 작은 나눔 실천을 이어 가겠습니다" 보령시는 지난 21일 자녀의 첫돌을 맞아 시청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으로 100만원을 기탁하고 앞으로 10년간 계속해 기부를 약속한 젊은 부부가 있어 화제라고 25일 밝혔다.

화제의 인물은 남편 이지원 씨와 아내 고가슬 씨 부부가 주인공이다.

이들 부부는 각각 보령수협과 대천서부수협에 근무하면서 지난 2018년 10월에 단란한 가정을 꾸려 지난해 딸 설이를 출산하고 이날 첫돌을 맞았다.그동안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모든 것이 처음이라 낯설어 어려움도 많았지만 주위의 따뜻한 격려와 관심이 큰 힘이 되어 딸이 건강하게 첫돌을 맞을 수 있었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 부부는 "아이를 키우는 기쁨과 보람을 그동안 도와주신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어 의미 있는 일을 찾다가 고심 끝에 작은 정성이지만 기부에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다.그리고 "우리 설이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것을 상상하며 앞으로 10년 동안 기부를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이에 김동일 시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이 시기에 정말 의미 있는 기부로 큰 교훈이 되고 있다"고 고마움을 표시하며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꿈을 꾸며 씩씩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정선우 바르게살기운동전남협의회 여성회장, 희망 2021 나눔캠페인 성금 200만원 영광군에 기탁

정선우 바르게살기운동전남협의회 여성회장은 지난 22일 영광군에 희망2021 나눔캠페인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바르게살기운동전남협의회는 진실, 질서 화합의 이념으로 지역봉사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로 매년 교통안전 캠페인,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캠페인, 전남 알리기 캠페인등에서 큰 역할을 해오고 있는 민간협력단체로 전남 22개 시·군 1만6천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공동회장을 우리지역 정선우 여성회장이 맡아 봉사활동을 주도해오고 있다.정선우 공동회장은 9년 동안 바르게살기운동 영광군협의회 여성회장을 역임하며 봉사활동 분야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활발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을 넘어 바르게살기운동전남협의회 회원의 만장일치로 2019년에 공동회장 여성회장으로 추대됐으며 여성회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대한민국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했다.정선우 공동회장은 "봉사활동을 위해 22개 시군의 회원들을 만날 때가 가장 행복하고 지역을 위한 봉사를 통해 삶의 의미와 희망을 느낀다"며" 이렇게 적은 금액이나마 지역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의 성금을 기탁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전남협의회 공동회장으로 취임하시던 정선우 여성회장님을 보며 참으로 기뻤고 20여 년 간 정선우회장님께서 봉사활동에 매진 할 수 있도록 묵묵히 함께 협력해주시는 민속굴비 박인수대표님께도 항상 감사드리고 지역을 위한 봉사와 성금기탁은 마음이 우러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인데 회장님의 아름다운 지역사랑의 마음을 보면 참 봉사와 이웃사랑이 어떠해야하는지 깨닫고 감동을 받는다"며 "그 마음을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이 되고 생활에 큰 보탬이 되도록 잘 전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김영안/기자

부자 간 대를 이은 장학금 선행

LC마트·남도탕·LC스크린골프장 박상태·박봉진 대표, 자연환경 김대수 대표 장학금 쾌척

강진군민장학재단은 지난 20일 LC마트·남도탕·LC스크린골프장이 500만원, 자연환경이 200만원을 장학금으로 기탁했다고 밝혔다.강진읍 남성리에 위치한 LC 마트·남도탕의 박상태 대표는 2009년부터 마트 매출액의 일부를 기부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착한가게 캠페인'에 동참했다.

또, 2007년부터 강진군민장학재단에 5회에 걸쳐 830만원을 기탁하고 이번에 아들인 박봉진 대표와 함께 장학금을 쾌척했다.

박봉진 대표는 "지금까지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 성장했기에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아버지와 함께 장학금을 기탁하기로 했다"며 "기탁한 장학금이 강진의 미래를 책임질 지역 인재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2006년부터 4년 동안 총 5,300만원의 장학금을 강진군민장학재단에 기탁한 아버지 김향옥 前대표의 뜻을 이어받은 김대수 대표는 2016년부터 8회에 걸쳐 3,4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으며 현재 강진군민장학재단 이사로 지역 인재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김대수 대표는 "저소득층 지역 학생들의 앞날을 응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기탁하기로 했다"며 "학업에만 집중해야 할 시기에 힘든 경제적 여건으로 힘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이승옥 이사장은 "지역 인재육성에 활발히 활동하시는 박상태·박봉진 대표님과 김대수 대표님께 감사드린다"며 "기탁해주신 소중한 장학금을 통해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학생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강진의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강진군민장학재단은 올해 5천만원의 장학기금이 기탁됐으며 지금까지 170억 2천 2백만원의 장학기금이 조성됐다.

김장길/기자

양평군립미술관, 서양미술사 600년,'빛의 명화전' 관람 재개

1월 19일부터, 다빈치에서 마티스까지. 세계적인 명화작품들이 미디어아트 세계 속으로

양평군립미술관에서는 개관 9주년 기념 세계미술사의 빛나는 명화들을 첨단과학과 융합한 '빛의 명화전'을 수도권 거리두기 조정으로 지난 19일부터 재 개관해 누리집 사전예약을 통한 관람예약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해당 전시는 르네상스시대 3대 거장들의 작품과 바로크시대 유동적이고 강렬한 남성적인 감각이 강조된 역동적이고 드라마틱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그리고 장엄한 고전양식의 부활인 신고전주의를 대표하는 작품들을 포함, 이상과 현실도피 사이를 오간 낭만주의 시대의 작품까지 마치 다큐멘터리를 연상케 하는 극적 상황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또한, 시대를 기록한 사실주의 작품에 이어 인상주의시대와 후기 인상주의시대 색채이론의 과학적 추구는 표현주의, 상징주의, 야수주의 등을 낳았으며 이들 표현양식들이 오늘날의 현대미술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영향을 줬는지 감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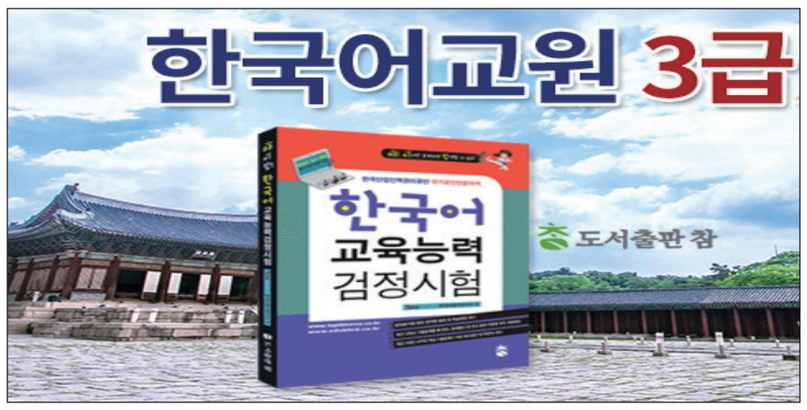
일반대중이 쉽게 이해하도록 시대별로 공간을 설정하고 공간을 따라 이동하며 서양미술의 흐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작품을 구성했다.

이형옥 양평군립미술관 학예실장은 "양평에서도 세계 유명작가들의 작품을 첨단 IT기술과 미술의 만남을 통해 볼 수 있는 교육적 계기를 만들어 가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양평문화발전과 글로컬 문화를 리드하는 국내 유일의 군립미술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성율/기자

토픽코리아·도서출판참 한국어강사 양성과정 수험서증정 비대면교육

근로자 국비지원 비대면 온라인교육



한국토픽교육센터 토픽코리아 국민내일배움카드에서는 한국어교원3급 국가자격증 시험 준비를위해 1월 23일에 근로자 국비지원교육으로 개강한다. 본 과정은 NCS기반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으로 HRD-Net의 근로자 훈련과정에 등록되어 있는 과정이며 비대면교육으로 진행한다.

직장인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고용노동부HRD-Net 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된다. 토픽코리아에서 2021년 1월에 개강하는 기수에 한해서 수험서 무료 이벤트를 진행한다. 해당 과목은 한국어교원3급 ①상/하 ②단기과정, 사회복지사1급 실천, 기초과정 등이다.토픽코리아·도서출판 참 발간'야이합'(야! 이거만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어) 이 책은 한국어교재 스테디셀러로서 현재까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특히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기출문제 해설교재와 해설강의 반복수강과 반복학습을 통해 핵심개념들과 친숙해지가 핵심이다.본 수험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한국어교원3급을 공부하지만 막연히 시작하여 자격증과 국가시험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대다수의 수험생을 위한 한국어교원3급 자격증 가이드를 수록하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양성과정 이수절차, 한국어교육능력시험 정보 및 자격증 취득 후 승급 절차와 진로 등을 제시했다.둘째는 영역별 총평과 학습중점을 기술하여 효과적 학습방향을 정립하였으며 최신 3개년 한국어교원 자격증 3급 시험의 모든 문항과 개념 정리, 문제에 적용하여 정·오답을 구별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를 완전히 마스터할 수 있게 했다.셋째는 2교시 113번 교수안 작성 주관식 문제에 대한 작성 팁(tip)과 문항분석, 예시답안을 제시했으며, 넷째, 학습범위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한국문화'영역에 대한 필수학습목록을 나열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어교원 3급 자격증시험에 수록된 3개년 문항중 반복 출제되거나 수험생들에게 생소하여 정리가 필요한 신유형 문항에 대한 저자 직강도 제공한다.

한국어교원자격증3급 국가공인자격증은 비학위과정으로 연령이나 학력에 제한 없이 누구나 취득할 수 있으며 자격증은 교원양성과정 120시간을 이수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1차 필기, 2차 면접)에 합격한 후 국립국어원 자격심사를 통해 주어진다.한국어교사 양성과정 이론의 경우 국립국어원의 규정에 따라 한국어학,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한국문화 총 4개의 영역을 105강으로 구성하여 진행을 하고 있으며 양성과정에는 이론과 실습과정이 있으며 이론과정 수료 후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실습을 진행한다. 이론과 실습을 모두 수료하게 되면 한국어교원 이수증명서가 발급되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 후에는 국내에서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또는 방과후 학교, 다문화가구가 밀집된 곳에 학교, 학원 등에서 한국어교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해외에서는 코이카, 한국어교육원, 한국문화원, 한글학교, 세종학당재단 등 폭넓게 활동할 수 있다.한국토픽교육센터 토픽코리아는 서울시상공회의소 동작구상공회, (사)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임원사이고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 한국이러닝협회, 한국고용협회, 한국HRD기업협회 회원사이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원격평생교육시설인가를 필한 교육전문기업으로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국가자격증 양성과정을 비대면 온라인교육을 통해 국비지원을 한다. 자세한 안내와 수강방법은 토픽코리아 인재개발교육원 홈페이지 및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고정화/기자

청주시 "서점 책 사 읽고 반납하면 책값 돌려준다"

청주시는 독서문화 확산과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해 이르면 4월 중순께부터 '지역서점 책값 반환제' 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주시립 도서관의 정회원으로 가입한 시민이 도서관과 협약한 지역 서점에서 책을 사서 읽은 뒤 21일 이내에 해당 책을 구입한 서점에 반납하면 책값을 환불해주는 것이다.청주시립도서관의 '희망도서 자료구입 규정'에 따라 수험서나 학생들의 참고서·문제집 등은 대상 도서에서 제외된다.시민은 1인당 월 2권까지 책값을 돌려받을 수 있다.이렇게 반환된 책은 시가 구입해 청주시립도서관 11곳에 배분, 열람실 등에 배치된다.시는 올해는 시립도서관의 전체 도서 구입비의 5%에 해당하는 4천여만원으로 이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4월부터 시범 운영한 뒤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 준비한 사업예산이 부족하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마포구, '책은 사랑을 싣고' 마음 처방 프로그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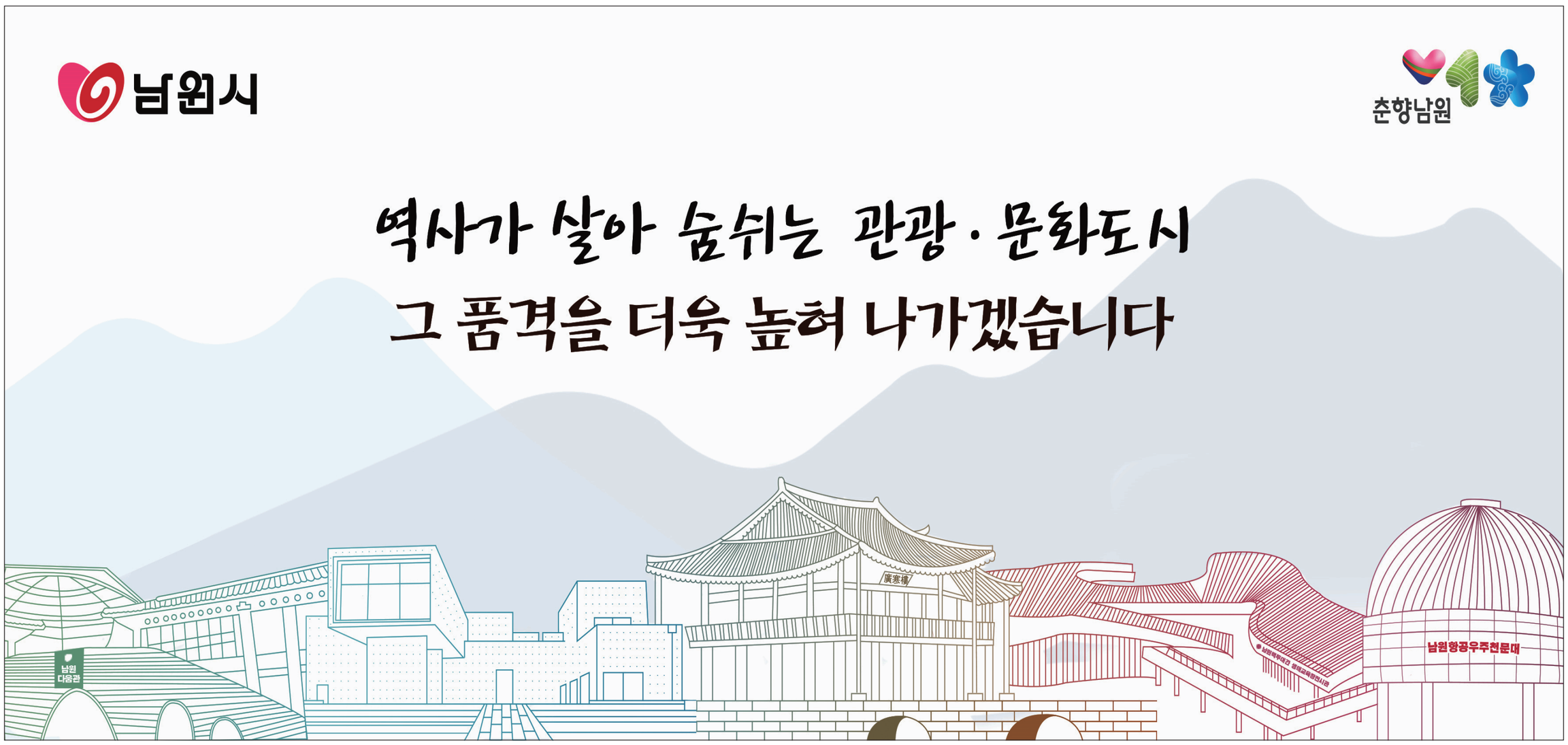
코로나 시대, 위로와 관련된 '책과 엽서' 통해 따뜻함 공유·감수성 제고

마포구는 오는 26일부터 책과 엽서를 통해 서로를 위로하고 안부를 전하는 '책은 사랑을 싣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코로나블루 해소를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책, 엽서라는 매개체를 통해 온정을 나눌 수 있는 일상 속 소소한 이벤트이다.'책은 사랑을 싣고'는 마포구민 또는 마포구립도서관 이용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도서를 대출하는 주민이 '코로나 시대의 위로'와 관련된 질문이 담긴 엽서를 받아 내용을 작성한 뒤 제출하면, 도서관이 이를 모아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엽서에 실린 질문은 위로가 되는 책 속의 한 문장 또는 구절은? 오늘 같은 날씨에 어울릴 만한 책 또는 음악, 영화는? 올해의 나만의 작은 목표 또는 바람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생긴 집콕 취미는? 코로나가 없어지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등 5가지로 책을 통한 위로와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희망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의 소통이 확대되는 요즘, 구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아날로그 감성의 엽서로 서로에게 위로와 안부를 전하는 특별하고 소중한 순간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도서관의 한 관계자는 "마포구립도서관이 '책은 사랑을 싣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구민들의 따뜻한 마음과 마음이 만나도록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장기화된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구민들이 일상에서의 따뜻한 위로와 소통을 통해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상순/기자



국가공간정보 통합·활용체계 개선 1단계 사업완료

클라우드 기반의 공간정보 데이터 통합 및 융·복합 활용체계 구축으로 대국민 공간정보 활용 편의성 강화와 디지털 국토 실현의 기반 조성

국토교통부는 국가공간정보의 통합·활용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한 "클라우드 기반의 공간정보 데이터 통합 및 융·복합 활용체계 구축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가공간정보센터는 2009년 5월 설립 이래 45개 기관, 73개 정보시스템에서 생산되는 각종 국가공간정보를 수집해 제공하는 허브 역할을 해왔으나, 상이한 시스템 환경 및 분리된 운영장비 위치에 따른 관리 불편,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 증가 등으로 전반적인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클라우드 기반의 공간정보 데이터 통합 및 융·복합 활용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20년부터 '22년까지 3단계에 걸쳐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기반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사업을 통해 구축된 클라우드 기반 국가공간정보 통합 플랫폼은 표준화된 국가공간정보 공급 및 서비스 활용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국가공간정보센터에서 운영 중인 공간정보Dream, 국토정보시스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등 국가공간정보 시스템의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과, 데이터 표준화를 통한 국가공간정보의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완료된 '클라우드 기반의 공간정보 데이터 통합 및 융·복합 활용체계 구축 1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와 대전센터로 분산되었던 전산자원을 광주 G-클라우드로 통합 구축하고 필요한 전산자원을 새롭게 도입해 운용 편의성 및 안정성을 확보했다.시스템별로 산재되어 활용 중이던 외산 소프트웨어에 대해 오픈소스 및 국산 소프트웨어 대체를 통해 유지비용 절감 및 국내 기술 경쟁력을 강화했다.국토정보시스템의 통계 테이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서 파일로 보관 중인 속성·도형정보에 대해 표준화를 적용한 통합DB로 구축했으며 이에 대한 공간정보 품질검사 및 생산기관의 오류정비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K-GeoPlatform이라고 명명한 공간정보 개발 프레임워크를 구축해, 좌표변환, 공간분석 등 공간정보 활용 서비스 개발을 위한 각종 API를 제공하고 플랫폼 내에서 각종 개발 편의기능을 마련했다.기존 공간정보Dream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던 지도드림, 통계드림, 모두드림 서비스를 클라우드 플랫폼 환경으로 이식하면서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또한, 3D 환경을 통한 경관심의 기능을 마련해 3차원 지도상에서의 조망권 및 일조량 분석 등을 통한 정책지원 서비스 여건을 마련했다.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디지털 뉴딜 및 4차 산업혁명에 있어 국가공간정보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고 공간정보는 이제 나와 상관없는 정보가 아니라 누구나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클라우드 기반의 국가공간정보 융·복합 활용체계를 마련해 공유함으로써, 향후 5년간 약 900억원에 이르는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되며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에 대한 기술적 부담 경감 및 다양한 공간정보 서비스 창출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성율/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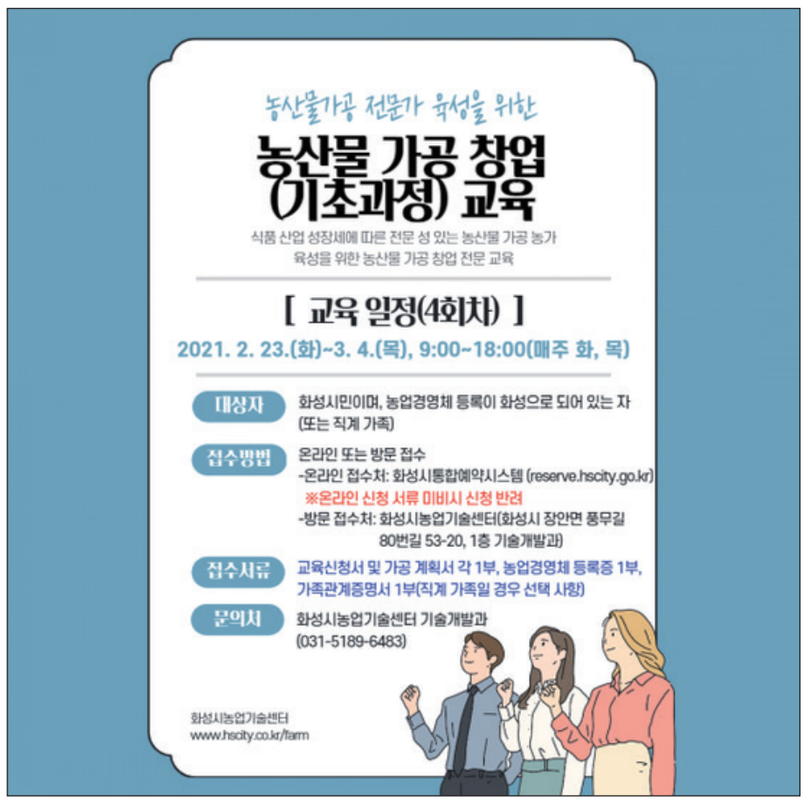
화성시, 부가가치 높이는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생 모집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화성시가 농가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농산물 가공 창업 전문교육'참가자를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관내 주민등록 및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이거나 그 직계가족이라면 신청가능하다.교육은 2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진행되며 소규모 농식품 창업전략 시장 조사 및 상품개발 식품가공 기술의 이해 HACCP 및 식품위생법 등을 다룰 예정이다.

선착순 30명 내외로 선발하며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 농산물가공팀으로 방문하거나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에서 접수하면 된다.특히 교육 수료자에 한해 향후 농산물 가공 창업 실무교육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과, 농산물 가공지원실을 이용한 시제품 제조 교육이 제공되므로 눈여겨볼만 한다.이명자 화성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농가의 6차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들께는 다양한 로컬푸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농업인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남주/기자



소부장 중소기업 판로 개척 위해 온라인 플랫폼 구축

용인시, 25일 코머신과 협약…78개국에 관내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용인시는 25일 관내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 기계산업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인 코머신과 '상생용인기업관'을 구축하는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관내 기업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는 페이지를 만들어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워진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열어가도록 시가 도우려는 것이다.코머신이 운영 중인 이 플랫폼엔 대한민국을 포함한 6619개 기업의 10만여 제품이 등록돼있다.

전 세계 200개국에서 월 10만명 이상의 관계자들이 접속하며 주요 수출국은 미국, 베트남 등 78개국이다.이날 협약에 따라 양자는 올해 말까지 코머신의 온라인 플랫폼 내 상생용인기업관 구축·운영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먼저 시는 관내 기계·부품, 화학·포장 등 산업재 생산 기업 500여곳의 신청을 받아 코머신에 기업 데이터를 제공한다.코머신은 상생용인기업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업과 제품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국내·외 영업과 수출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을 무료로 지원하게 된다.이에 따라 시는 5억여원의 업체 등록비용과 플랫폼 구축비용을 절감하고 관내 기업들이 국내 기계산업 분야의 실무

정보를 교환하는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박은철 코머신 대표는 "시의 도움으로 성장해 온 만큼 다른 중소기업에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으로 협약에 나선 것"이라며 "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상생용인기업관을 통해 위기를 넘기기 바란다"고 말했다.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5년간 용인시의 수출 실적이 도내 1위로 선전해왔는데 성장세를 이어가도록 적극 동참해준 코머신에 고맙다"며 "지역경제의 주체인 중소기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시의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시청 시장실서 진행된 협약식엔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한 박은철 코머신 대표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했다.상생용인기업관에 등록해 수출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시 기업지원과으로 전화해 상담하면 된다.한편 지난 2014년 설립된 기흥구 중동 소재 ㈜코머신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의 지원으로 1인 창업지원센터에서 동반 성장해온 스타트업 기업이다.2017년 공공데이터 공모전에서 대통령상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비롯해 지난해 100만불 수출탑, 경기도지사 표창 등 다수의 수상이력이 있다.

이성율/기자

남원사랑 카드형상품권 이용 활성화 추진

체크카드 연계방식, 편리한 온라인 신청, 알뜰소비

남원시가 카드형 남원사랑상품권 보급 확대와 이용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섰다.시는 지난해 11월 25일 카드형 남원사랑상품권을 처음 출시했고 농협카드만 발급했으나, 한국조폐공사와 전산망 구축작업을 통해 2021월 1일 22일부터 우체국카드 발급 시스템을 추가 구축하고 카드형상품권 이용자 모집에 대대적으로 나선다고 전했다.카드형 남원사랑상품권이 농협은행에 이어 우체국까지 합세하고 추가 구축 예정인 새마을금고까지 더해지면, 남원시민은 카드사별 포인트 적립 등 혜택제공 사항등을 확인하고 자신이 선호하는 카드사를 선택,기호에 맞는 카드를 선택할 수 있어 시민들의 좋은 호응이 예상된다.남원사랑카드는 체크카드 연계 방식이며 만19세 이상 시민이면 스마트폰 앱에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계층은 농협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하면 무료료 발급받을 수도 있다.

카드형상품권 구매한도는 모바일상품권과 합산 50만원이며 지류형상품권 구매한도 50만원을 더하면 개인당 월 100만원을 구입해 사용할 수 있고 할인율은 10%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상황에서 남원사랑상품권이 소비를 촉진시켜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또한 "그간 지류형상품권의 방문구매에 따른 불편함, 보관상의 불편함, 가맹점 환전 등의 불편함을 해소해 사용자들의 편리성을 한층 높였다"고 전했다.

이남출/기자

인천·울산 화물차 휴게소에 대용량 수소충전소 구축

국토교통부는 수송 분야 수소경제 활성화 추진의 일환으로 10톤급 대형 수소화물차 도입을 위한 대용량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기 위해 '21년 사업 시행 지자체로 울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7일부터 3주간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고 수소·교통·물류·도시계획 등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타당성, 입지 여건, 시설 활용·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모에 참여한 3개 기관 중 2개 기관을 선정했다.국토교통부는 2019년 1월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른 민간부문 경유화물차의 수소화물차 전환을 위한 시범운행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작년 5월 수소차 관계부처, 물류기업, 차량제작사와 수소화물차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이번 수소충전소 구축은 수소 화물차 시범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초의 충전소 구축임과 동시에 향후 수소 기반의 물류네트워크 운영의 첫 출발이라는 의의가 있다.사업자로 선정된 울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는 모두 항만과 산업·물류단지 인근에 위치한 물류거점인 화물차 휴게소를 부지로 해 수소충전소를 연내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국토교통부는 두 지자체의 수소화물차 충전소 구축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참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 단계별 추진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적기에 해소해나가는 한편 향후 업계 수요와 시범사업 경과 등을 참고해 수소화물차용 충전소의 구축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김배성 과장은 "수소화물차 전환은 그 어느 분야보다도 친환경 효과가 큰 분야로 물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며 앞으로 본격적인 수소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충전 인프라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율/기자

인천·울산 화물차 휴게소에 대용량 수소충전소 구축

국토교통부는 수송 분야 수소경제 활성화 추진의 일환으로 10톤급 대형 수소화물차 도입을 위한 대용량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기 위해 '21년 사업 시행 지자체로 울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7일부터 3주간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고 수소·교통·물류·도시계획 등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타당성, 입지 여건, 시설 활용·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모에 참여한 3개 기관 중 2개 기관을 선정했다.국토교통부는 2019년 1월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른 민간부문 경유화물차의 수소화물차 전환을 위한 시범운행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작년 5월 수소차 관계부처, 물류기업, 차량제작사와 수소화물차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이번 수소충전소 구축은 수소 화물차 시범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초의 충전소 구축임과 동시에 향후 수소 기반의 물류네트워크 운영의 첫 출발이라는 의의가 있다.

사업자로 선정된 울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는 모두 항만과 산업·물류단지 인근에 위치한 물류거점인 화물차 휴게소를 부지로 해 수소충전소를 연내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국토교통부는 두 지자체의 수소화물차 충전소 구축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참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 단계별 추진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적기에 해소해나가는 한편 향후 업계 수요와 시범사업 경과 등을 참고해 수소화물차용 충전소의 구축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김배성 과장은 "수소화물차 전환은 그 어느 분야보다도 친환경 효과가 큰 분야로 물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며 앞으로 본격적인 수소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충전 인프라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율/기자

김포시 도시주택국장, 공동주택 건설현장 현장점검 실시

김포시 박동익 도시주택국장은 지난 22일 김포시에서 공사 중인 공동주택 건설현장에 대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현장점검은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일원에 추진 중인 공동주택 건설현장에 대해 실시했으며 코로나19 방역지침 이행 실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등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김포시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공동주택 건설현장 방역지침

이행 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방역조치 사항에 대한 일일보고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박동익 도시주택국장은 공사관계자들에게 건설현장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방역활동 강화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처하고 특히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했다 한편 김포시는 작년 한해 총 15단지, 16,258세대의 공동주택이 사용검사 완료됐으며 현재 7개 현장이 공사 중에 있다.

권이철 주택과장은 "공동주택 건설현장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공동주택 품질을 향상해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김영근/기자

북구, 설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

다음달 5일까지 관내 전통시장, 대형마트, 영화관 등 14곳 안전점검 실시

광주시 북구가 설 명절을 대비해 안전관리에 나선다.북구는 다음달 5일까지 주민들이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14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사고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설물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자 마련됐다.이에 건축·전기·소방 분야로 구성된 점검반을 통해 배선 불량, 누전차단기 작동여부 전기·기계실 유지관리 상태 피난통로 확보 여부, 소화기 교체 등 안전관리 상태 법적기준 준수 및 안전성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방치됐거나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화재 위험성과 구조안전 등도 확인한다.북구는 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문인 북구청장은 "자칫 소홀해 질 수 있는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윤/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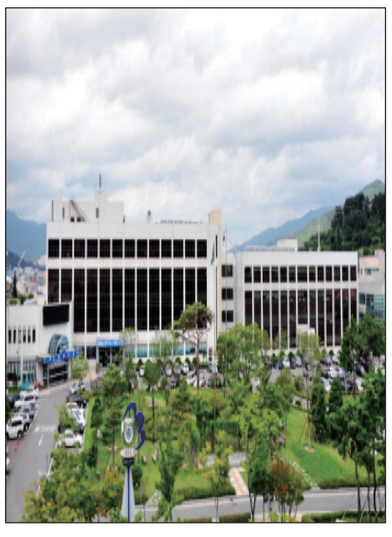
양산시, 동물보호법 위반 집중 단속 홍보

2020년 동물보호법 위반 14건, 280만원 과태료 부과

양산시는 반려동물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보호법 미준수 신고 민원이 폭증했다고 밝혔다.현재 양산시에 등록된 반려견은 14,238마리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2020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처분된 건수는 14건으로 모두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 시 안전조치 미준수 위반으로 처분됐으며 위반 과태료는 280만원이다.이 외에도 소음·배설물 미수거 등으로 인한 생활 불편 신고도 연간 500여건이 넘는다.이에 따라 양산시는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3월부터 한달간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이행 준수 및 펫티켓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평소 민원 신고가 많은 근린공원, 강변 산책로 아파트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홍보 기간 종료 후 4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단속내용은 동물등록·안전조치·배설물 수거 준수 여부이다.위 법령 위반으로 적발시 현장에서 바로 확인서를 징구하며 동물보호법에 의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양산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 펫티켓을 준수해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 더불어 사는 도시가 되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예산군, 설맞이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총력

예산종합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19개소 대상

예산군은 25일부터 29일까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점검대상은 예산종합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19개소이며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반을 통한 철저한 점검에 나서게 된다.이번 점검에서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 손상·균열·누수 발생여부 전기시설 정상작동 여부 가스설비 가스누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전반적인 안전관리 상태에 대해서도 확인·지도를 병행하고 있다.

특히 군은 종합터미널, 예산상설시장, 예산역전시장 등 이용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및 지도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 및 선제적인 예방활동에 나서는 한편 군민과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사고 없는 안전한 지역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위해 앞으로도 귀성객과 군민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경상남도, 택배기사 등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나서

22일 도정회의실,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경상남도가 대면업무를 수행하면서 코로나19 감염 위험과 업무량 증가로 애로를 겪고 있는 필수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22일 오후 2시 중앙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양대노총, 학계, 창원지방고용노동지청 관계자, 노동 분야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필수노동자 워킹그룹과 경남연구원 연구진 등 15명이 참석해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용역'의 3대 중점과제인 경남지역 필수노동자 지원 범위 고용 및 노동환경 조사 정책요구 파악과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경남연구원은 보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도내 필수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급여수준, 건강상태, 방역실태 등을 조사하고 정책요구 사항을 파악할 예정이다.

도는 6월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용역이 완료되면 '필수노동자 지원대상과 세부 지원기준'을 마련해 도내 필수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고회를 주재한 김희용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돌봄노동자,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과 같은 필수노동자들의 환경이 더욱 더 열악해졌다"며 "필수노동자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경남형 지원 대책을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파주시, 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 특별감시 실시

파주시는 설 연휴 기간 중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이 우려됨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14일까지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 및 감시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감시는 설 연휴기간 중 환경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오염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홍보계도·특별단속, 하천순찰·상황실 운영 등 연휴기간을 2단계로 나눠 추진할 예정이다.우선, 코로나19 확산 및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연휴 전에 사전계도 및 자율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취약업소 및 환경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통해 환경관련 법규 위반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가 따를 예정이다.특히 설 연휴기간에는 상수원수계, 공단주변 하천 등 오염물질 배출이 우려되는 하천 순찰을 강화하고 상황실을 설치·운영해 환경오염사고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조윤옥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자칫 시설관리에 소홀해지기 쉬운 시기인 만큼 불법행위 등으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환경오염 의심 현장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즉시 상황실 또는 환경신문고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영기/기자

박상원, 전광렬, 윤다훈, 김유석 꽃중년 4인방이 뭉쳤다 'OPAL 세대'가 전하는 '슬기로운 중년 생활'

박상원-전광렬-윤다훈-김유석 뭉쳤다 박상원 '배우 박상원 아닌, 인간 박상원의 면모 보여주겠다'

배우 박상원, 전광렬, 윤다훈, 김유석이 MBC 신규 파일럿 예능프로그램 'OPAL이 빛나는 밤'에 출연한다.'오팔 OPAL'은 'Old People with Active Lives'의 앞글자를 딴 신조어로 베이비부머, 실버세대 등으로 불리던 중장년층을 새롭게 일컫는 말이다. MBC 'OPAL이 빛나는 밤'은 평균수명 백세시대, 과거와는 달리 구매력과 건강을 모두 갖춘 새로운 세대인 'OPAL 세대'가 주목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신규 파일럿 예능프로그램이다.MBC 신규 파일럿 예능프로그램 'OPAL이 빛나는 밤'은, 어느 세대 보다 열정적이고 진취적인 세대로 진화하고 있는 중년 찐 형님들의 리얼 일상을 들여다보는 한편 그들의 모습 속에서 삶의 노하우를 나누고 또 중년이라면 누구나 고민할 부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본다.연예계 'OPAL 세대'를 대표할 형님들로는 박상원, 전광렬, 윤다훈, 김유석이 출연, 각기 다른 삶을 통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중년의 라이프를 보여줄 예정이다.

그동안 다양한 드라마를 통해 부드럽고 신사적인 이미지를 선보인 배우 박상원은 4년 만의 관찰 예능 출연으로 배우 박상원이 아닌 중년을 살아가는 한 남자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쏠린다.

또한 각종 드라마에서 명품 연기를 선보이며 국민 배우 반열에 오른 전광렬도 그간 방송에서 보여줬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과는 달리, 예상치 못한 허당미를 뽐내며 시청자들에게 한층 친숙한 이미지로 다가갈 예정이다.MBC 시트콤 '세친구'를 통해 전성기를 누렸던 배우 윤다훈도 오랜만에 예능에 출격한다.윤다훈은 그간의 고충을 털어내고 인생 2막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통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자아낼 것으로 보인다.한편 한 번도 사생활이 공개된 적 없는 배우 김유석은 데뷔 이래 최초로 사생활을 공개한다.그만의 라이프 스타일이 담긴 단독주택은 물론, 평소 생활 모습까지 낱낱이 공개한다고 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상원, 전광렬, 윤다훈, 김유석 네 명의 배우들이 과연 시청자들에게 어떤 공감을 불러일으킬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린다.2부작으로 방송되는 MBC 신규 파일럿 예능프로그램 'OPAL이 빛나는 밤'은 2월 중 방송된다.

전순희/기자

권나라, 클라이맥스로 치닫는 '암행어사' 심장 쫄깃

배우 권나라가 '암행어사'에서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악과 마주한 '청춘 다모' 홍다인 그 자체로 분해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냈다.무르익은 연기력과 몰입을 부르는 눈빛으로 클라이맥스로 치닫는 '암행어사'의 심장 쫄깃 쪼는 맛을 제대로 살리며 시청자들의 시선을 점령했다.권나라는 지난 25일 방송된 KBS 2TV 월화드라마 '암행어사'에서 아버지 휘영군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는 관찰사 김명세의 감영에 잠입한 홍다인의 '직진 활약'을 완벽하게 빚어내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았다.다인은 김명세의 집에 책비로 입성했다.다인은 명세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아버지 휘영군의 억울한 죽음과 이를 묵인한 채 창질에 걸려 괴로움 속에 살아온 명세의 상황을 비유하는 임금과 신하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의 양심을 흔들었다.다인은 제 발이 저려 칼을 들고 금방이라도 베어버릴 듯 분노하는 명세 앞에서도 흔들리는 기색이 없었다.오히려 똑바로 그의 눈을 바라보며 "휘영군이 죽던 그 날, 영감을 괴롭히는 그 기억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느냐. 망가지는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제 그만 진실을 말해달라"고 일침을 가했다.이후 다인은 방에서 휘영군의 물건, 옥로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역적에 몰렸다.다인은 자신을 몰아세우는 김만희 앞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은 채 '팩폭' 발언을 날리며 '서릿발 다인'의 매력으로 극의 텐션을 이끌었다.다인은 "한양에 있을 때 고관대작들에게 받은 옥로만 수십 개다.그러고 보니 영감도 제 손님이지 않았습니까?"고 반격에 나서 만희를 꼼짝 못 하게 만들었다.다시 옥에 갇힌 뒤,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명세를 향해서는 "또다시 그들의 졸개가 된다면 영감의 남은 생애마저 피로 얼룩질 거다"고 꾸짖으며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의연한 모습을 보였다.권나라의 무르익은 연기가 클라이맥스로 치닫는 '암행어사'의 쪼는 맛을 흥미진진하게 살린 가운데, 이날 방송에선 휘영군의 죽음에 얽힌 진실이 베일을 벗으며 '역적의 딸' 다인의 운명을 둘러싼 전개가 더욱 거세게 휘몰아칠 것을 예고했다.다인의 아버지 휘영군을 죽음으로 몬 배후는 영의정 김병근 일파였으며 명세는 죽은 휘영군의 품안에서 역적이 아니란 사실을 입증할 서찰을 찾았지만 이를 몰래 숨겨온 과거가 드러난 것. 다인이 결정적 증거를 손에 넣어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의 원을 직접 풀어줄 수 있을지, '완성형 다모' 다인의 활약에 더욱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방송 말미엔 참형 위기에 처한 다인과 그를 구하기 위해 망나니와 포졸로 변신한 어사단의 모습이 엔딩을 장식, 어사단이 이 위기를 어떻게 타파해갈지 궁금증을 고조시켰다.

권나라는 용기와 패기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과 악과 마주한 다인의 모습을 당차면서도 섬세한 연기로 빚어내며 긴장감을 유발했다.단단하고 힘 있는 목소리로 진실을 묻고 비겁함을 지적하는 장면들은 시청자들이 절로 다인에게 감정을 이입하게 했고 진심을 담은 눈빛과 무르익은 연기력은 '쪼는 맛'을 제대로 선사하며 클라이맥스로 향하는 '암행어사'의 남은 여정을 더욱 기대하게 했다.

전순희/기자

'와일드 와일드 퀴즈'의 비밀병기 밥굽남

'그가 알고 싶다'. 야생에 최적화된 고기의 화신

유재석도 '놀면 뭐하니?'에서 언급했던 그 밥굽남이 드디어 베일을 벗는다.격이 다른 고기 쿡방과 먹방으로 유튜브의 신성으로 떠오른 산적 TV 밥굽남이 '와일드 와일드 퀴즈'로 생애 최초 예능에 합류한 것. 그는 첫 촬영 소감으로 "어안이 벙벙하다"며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다"고 귀여운 매력을 드러내 관심을 집중시켰다.오는 2월 2일 화요일 밤 11시 첫 방송되는 '와일드 와일드 퀴즈' 측은 첫 방송을 일주일 앞두고 '비밀 병기'로 야생에 최적화된 밥굽남의 인터뷰를 공개했다.언택트 시대, 자발적 고립 속에서 펼쳐지는 야생 생존 쿡방 퀴즈쇼 '와와퀴'는 뼈꾸기 산장에서 벌어지는 '맞힌 자는 먹고 틀린 자는 굶는 진정한 승자독식 예능'이다.skyTV의 버라이어티 채널 NQQ와 종합편성채널 MBN이 첫 공동 제작하고 첫 동시 방송한다.밥굽남은 유튜브 '산적TV밥굽남'으로 현재 132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인기 유튜버다.산적 비주얼로 고기 쿡방과 먹방을 펼치는 것이 그의 주요 콘텐츠. 지난 주 '놀면 뭐하니?'에서 산적 비주얼로 나타난 유재석은 고기를 구우며 '밥굽남'을 언급하면서 "그분은 잘하시던데"고 인정해 이미 '고기의 화신'으로 유명한 인물이라는 사실이 인증된바 있다.이에 야생에 내던져지는 '와와퀴'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 밥굽남. 그는 '와와퀴' 출연을 결심하게 된 이유로 "저의 개인 유튜브 채널과 콘셉트도 맞았다"며 "제작진 측에서 '2주마다 바람 쐬러 가시죠'라고 한 결정적 한 마디가. "며 해맑게 웃음을 지었다그는 '와와퀴' 만의 매력 포인트로 '야생'을 꼽았다.공개된 사진 속에는 그의 레오파드 의상이 시선을 강탈해 야생에 최적화된 그의 모습이 기대를 갖게 한다.또한 '육즈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의 개인 채널 구독자들과 활발한 소통을 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시청자들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밥굽남은 "TV 예능 출연은 처음과 다름없다 보니, 열심히 최선을 다해 즐거움을 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다.프로그램 게시판이나 개인채널에서도 활발하게 소통하겠다"며 "산적TV로 놀러 오세요~^^"며 홍보도 잊지 않는 센스를 보였다.이 밖에도 그는 함께하는 멤버 이수근, 박세리, 양세찬, 이진호, 이혜성으로 인해 어안이 벙벙한 사실을 털어놓는 등 귀여운 매력을 또다시 드러냈다.밥굽남은 첫 촬영을 마친 소감을 묻자 "우선 어안이 벙벙했다고 해야하나. 1박2일 동안 TV에서 나오시는 대단한 분들이 눈 앞에 계시니 아직도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며 웃었다.또한 멤버들과의 호흡과 관련해서는 "생각했던 것보다도 다들 너무 재미있었다 배꼽만 빠지다가 첫 촬영이 지났다"며 "제 개인적으로 앞으로 멤버들과의 호흡이 제일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마지막으로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도 보냈다.밥굽남은 "코로나19로 너무나 고통받고 힘드신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데 정말 열심히 재미있게 준비한 방송이라 보시고 조금이라도 웃음을 찾으셨으면 좋겠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며 감사 인사를 함께 전했다.유튜브 시청자들이 큰 호응을 보내며 최근 대세로 떠오른 밥굽남이 대한민국 시청자 모두에게 '비밀병기'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그가 어떤 웃음을 전할지는 오는 2월 2일 첫 방송되는 '와와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한편 '와와퀴'는 MBN을 비롯해 NQQ를 통해 만날 수 있다.

전순희/기자

'바람피면 죽는다' 형사 이시언-김예원, 조여정 집 다시 찾았다

'그것을 알고 싶다'로 뜻밖의 공조 수사 中 문제 생겼나?

'바람피면 죽는다'의 형사 이시언과 김예원이 조여정의 집을 다시 찾아온 모습이 포착됐다.이들이 '백수정 살인 사건'을 다루는 '그것을 알고 싶다' 방송을 통해 뜻밖의 공조 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수사에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궁금증을 끌어올린다.KBS 2TV 수목드라마 '바람피면 죽는다' 측은 26일 강여주의 집을 방문한 장승철과 안세진의 스틸을 공개했다.지난 14회에서 여주는 '백수정 살인 사건'을 다루는 '그것을 알고 싶다' 특집 방송에 참여하게 됐다.이 소식을 들은 장형사와 안형사도 '백수정 살인 사건'의 담당 형사로 참여했다.여주를 '백수정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주목하고 있는 장형사와 안형사 그리고 여주가 뜻밖의 공조 수사를 시작하게 된 것. 여주의 추리와 경찰의 수사가 동시에 이뤄지며 '백수정 살인 사건'의 비밀을 풀 단서들이 모이고 있다.

공개된 사진엔 여주의 집을 기습 방문한 장형사와 안형사의 모습이 담겼다.여주는 시선을 돌린 채 아무 말 없이 자신을 찾아온 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들은 듯 깊은 고민에 빠진 여주의 모습이 의미심장하다.여주를 대할 때마다 평정심을 잃던 장형사는 이번엔 웬일인지 저자세를 보이고 있고 안형사도 여주에게 집중하고 있다.마치 여주의 선택을 기다리는 듯 그녀의 반응을 살피는 두 사람. 과연 이들이 여주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지 관심이 쏠린다.'바람피면 죽는다' 제작진은 "강여주에게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질 예정"이라며 "갑자기 집을 찾아온 형사들이 그녀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했을 지, 그리고 여주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바람피면 죽는다'는 오로지 사람을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범죄 소설가 아내와 '바람피면 죽는다'는 각서를 쓴 이혼 전문 변호사 남편의 코믹 미스터리 스릴러로 죄책감을 안고 나쁜 짓을 하는 어른들에 대한 파격적이고 강렬한 이야기를 선보인다.'넝쿨째 굴러온 당신', '황금빛 내 인생' 등 연출력을 뽐낸 김형석 PD와 지상파 첫 시즌제로 큰 사랑을 받았던 '추리의 여왕'의 이성민 작가가 의기투합했다.

전순희/기자

'라디오스타' 유노윤호, 아이키와 에너지 Full 충전 '모닝 댄스'X

'열정 만수르' 동방신기 유노윤호가 '라디오스타' 스페셜 MC로 출격해 글로벌 댄서 아이키와 함께 에너지 풀 충전 '모닝 댄스'를 선보인다.방송에 앞서 열정 DNA가 꿈틀대는 듯 흡사 바닥에 '착붙'한 자세 춤을 추고 있는 유노윤호의 모습이 포착돼 본방송을 향한 기대감을 높인다.이효리, 장윤주, 한혜진 등 센 언니들의 보스인 김소연 에스팀 대표가 출격해 이효리에 이어 남편 이상순까지 영입한 비화를 공개할 예정이어서 호기심을 자극한다.오는 27일 밤 10시 20분 방송 예정인 고품격 토크쇼 MBC '라디오스타'는 각 분야의 매운맛 언니들 강주은, 김소연, 소녀시대 효연, 아이키와 함께하는 '빨간 맛~ 궁금해 언니' 특집으로 꾸며진다.이날 스페셜 MC는 아시아의 별 유노윤호다.그는 빨간 맛 센 언니들 사이에서 특유의 열정 부자 면모를 발휘하며 진행 실력, 입담, 댄스까지 탈탈 털며 만점 활약을 펼친다.'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눈 뜨자마자 격정의 모닝 댄스를 춰 화제를 모았던 유노윤호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아침에 춤을 추는지 궁금해한다"라는 질문에 "무대에 설 때는 리얼로 그렇게 한다.하루 10시간도 춤을 춘다"며 데뷔 18년 차에도 연습생 못지않은 스케줄을 소화하는 이유를 공개한다고 해 궁금증을 자극한다.또 유노윤호는 댄서 아이키와 함께 에너지 풀 충전 '모닝 댄스'를 선보인다.방송에 앞서 공개된 사진에는 허리를 뒤로 완전히 제친 채 열정 DNA를 과시하고 있는 유노윤호의 모습이 포착돼 두 춤꾼의 깜짝 무대를 기대하게 한다.또 유노윤호는 한솥밥을 먹는 소녀시대 효연이 지목한 차기 'SM 이사'에 꼽힌다.2000년 SM에 입사해 '21년 SM 외길 인생'인 효연은 "SM 회식 때 열정맨들이 이수만 선생님 주위에 있다"며 유노윤호를 포함해 포스트 이수만을 노리는 성실과 열정을 겸비한 후보군 TOP4를 공개한다고 해 궁금증을 유발한다.이번 특집에는 이효리, 장윤주, 한혜진, 이혜영 등 연예계 대표 센 언니들의 보스, 에스팀 김소연 대표가 등장한다.소속사 아티스트이자 절친으로부터 "방송 욕심"을 폭로 당한 김소연 대표는 예상외 입담과 방송 체질을 뽐낸다고 해 그의 활약을 기대하게 한다.또 김소연 대표는 지난해 '올타임 슈퍼스타' 이효리를 소속사 식구로 영입하게 된 비화를 공개한다.특히 그는 "이효리에 이어 이상순은 내가 먼저 계약하자고 했다"며 부부를 영입하게 된 이유까지 들려줘 시선을 강탈할 예정이다.

유노윤호와 아이키의 에너지 풀 충전 '모닝 댄스'는 오는 27일 수요일 밤 10시 20분에 방송되는 '라디오스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순희/기자

손흥민 레알 이적 현실될까..

손흥민(29, 토트넘 홋스퍼)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에 단순한 루머에서 현실이 될 수 있을까. 레알 마드리드 1순위였던 킬리앙 음바페(22, 파리 생제르맹), 엘링 홀란드(20, 도르트문트) 영입에 빨간불이 켜졌다.글로벌 스포츠 매체 'ESPN'은 25일(한국시간) "최근에 레알 마드리드에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타격을 입었다. 음바페와 홀란드 같은 영입에 어려움을 겪을 거로 보인다"고 보도했다.매체는 "음바페와 홀란드는 과거부터 레알 마드리드와 강하게 연결되고 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뒤에 재정적 불안감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언제 이적료를 올릴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게 됐다"며 고개를 저었다.레알 마드리드는 매년 여름에 세계 최고 선수들을 수집했다. 2018년에는 러시아 월드컵 골든 글러브 티보 쿠르투아를 영입했고, 2019년에는 프리미어리그 최고 선수 에당 아자르를 품었다.쿠르투아는 세계 최고 골키퍼로 맹활약하고 있지만, 아자르는 아니었다. 3년 전 레알 마드리드를 떠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공백을 메워주길 바랐지만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프리시즌부터 과체중 논란에 휩싸였고 매번 부상에 신음했다. 이대로면 '먹튀' 가능성이 크다.

전력 보강이 필요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여름에 보강을 하지 않았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여름 '0입'이었다. 올해 여름에 터트릴 각오로 시즌에 돌입했지만 전력에 균열이 생기면서 흔들리고 있다. 스페인 슈퍼컵과 코파델레이(국왕컵)에서도 탈락했다.지네딘 지단 감독과 작별 가능성도 더해지고 있어 흉흉한 분위기다. 이번 시즌에 부진하다면 여름 영입은 필수다. 현지에서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뒤에 새로운 갈락티코를 만들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음바페와 홀란드 영입 가능성이 컸지만,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 1옵션에게 접근할 수 없다면 손흥민에게 공식적인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스페인 매체들도 "레알 마드리드는 명백하게 음바페를 원하고 있다. 음바페 영입에 실패하면 홀란드에게 러브콜을 보낸다. 두 선수가 실패한다면 손흥민, 사디오 마네(28, 리버풀), 해리 케인(27, 토트넘 홋스퍼), 제이든 산초(20, 도르트문트)에게 눈을 돌릴 것"이라고 전망했다.물론 손흥민 영입도 쉽지 않다. 토트넘은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 팀 내 핵심 선수를 보낼 생각이 없다. 손흥민에게 팀 내 최고 대우와 장기 재계약을 제안했다. 레알 마드리드가 접근한다고 해도 최소 1000억 이상을 부를 공산이 크다. 조제 무리뉴 감독도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커리어를 끝내고 싶어한다"며 현재 분위기를 전달한 바 있다.

전순희/기자

야구장 개장, 군계일학의 전지훈련지로 거듭난 창녕스포츠파크

야구장 2면 건립으로 축구에 이어 야구 전지훈련지로도 각광받아

대한민국 전지훈련 1번지로 주목받고 있는 창녕군이 국내 종목별 스포츠팀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2018년부터 야심차게 준비한 야구장 2면이 2020년 12월 완공, 1월부터 개장해 축구에 이어 야구까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전지훈련지로 각광받고 있다.

군은 코로나로 인해 전국대회와 전지훈련이 침체됐다에도 불구하고 2020년 기준 방문스포츠 502개팀 연인원 86,637명을 유치했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연속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동계훈련하기 좋은 도시 부분' 대상을 수상하는 등 대한민국의 스포츠 중심도시로 맹위를 떨치고 있다.당초 군은 람사르 습지 도시로 인증 받은 우포늪과 화왕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국보 제33호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 등 다수의 문화재를 보유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자연친화적인 관광과 축제의 도시로 널리 알려졌으나, '더 큰 번영, 모두가 행복한 창녕'을 만들기 위해자연, 문화, 그리고 사람이 결합한 퓨전스포츠에 초점을 맞춰 체계적인 계획 하에 변화를 시도했다.

2010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해 2017년 천연 2면, 인조 5면의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집약적 축구전용시설을 완성하면서 힘찬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고 전천후게이트볼장을 완성해 모양새를 갖췄으나, 군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곧바로 야구장 2면을 추가 완공해 대한민국 최고의 전지훈련지로 비상하고 있다.이러한 스포츠마케팅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양파 시배지, 부곡온천, 창녕낙동강유채축제, 화왕산, 우포누리, 따오기 방사 등 기존의 창녕군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물론 축구, 태권도, 사이클, 유도 등 다양한 종목별 대회를 유치하고 유튜브와 각종 스포츠 채널 등을 통해 중계한 덕분에 대외적인 군의 이미지도 역동적이고 활동적으로 바뀌고 있다.대구광역시와 경상남도, 창원시와 연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용이한 지리적 이점에 창녕스포츠파크를 중심으로 한 창녕국민체육센터, 창녕군민체육관 등 다양한 체육 인프라까지 완비했고 특히 대한민국에서도 손꼽히는 축구전용구장을 갖춘 창녕스포츠파크에 이제 야구장 2면 건립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스포츠 종목인 축구에 이어 야구까지 섭렵해 창녕스포츠파크의 인기가 한동안은 계속될 예정이다.사계절 운동하기 좋은 온화한 기후와 78℃전국 최고의 수온을 자랑하는 부곡온천과 연계한 부곡온천관광특구 내 25개의 풍족한 숙박시설로 차량의 이동 없이 훈련, 숙박, 식사, 온천욕까지 한 번에 해결되는 탁월한 접근성과 편리한 시설에 매료되어 매년 다시 찾아오는 팀들로 인해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는 입소문이 자자하다.그리고 전지훈련을 격려차 방문하는 학부모들도 온천욕을 비롯한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에 감탄하며 선수단의 전지훈련지로 창녕을 선호해서 매년 숙박과 훈련장 예약을 하느라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후문이다.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의 많은 공공체육시설이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잠정휴관으로 인해 훈련지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고 창녕군의 공공체육시설에도 전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이에 군에서는 지난 18일부터 창녕스포츠파크에 한정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조건으로 동계전지훈련팀을 유치하기로 해 2021년 대한민국 최고의 전지훈련지로의 인기몰이를 시작했다.한정우 군수는 "매년 방문하는 팀들이 다음해에 다시 방문해, 더 오래 머물고 싶어해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기대되는 창녕군을 만들기 위해 모든 군민과 합심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 창녕스포츠파크에서의 전지훈련과 부곡온천의 피로해소를 통해 창녕군의 좋은 기운을 받아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에 오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김시우 3년8개월 만에 PGA 투어 3승 달성,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서 23언더파로 우승

김시우(26·CJ대한통운)가 3년8개월 만에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3승을 차지했다.김시우는 25일(한국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킨타의 PGA 웨스트 스타디움 코스(파72·7113야드)에서 열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총상금 670만 달러) 최종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8개를 뽑아내 8언더파 64타를 쳤다.최종합계 23언더파 265타를 기록한 김시우는 먼저 경기를 마친 패트릭 캔틀레이(미국)를 1타 차로 따돌리고 PGA 투어 개인통산 3승째를 달성했다. 2016년 8월 윈덤 챔피언십, 2017년 5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PGA 투어 2승을 보유한 김시우는 3년8개월 만에 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룩했다.이번 우승으로 김시우는 페덱스컵 랭킹을 9위로 끌어올렸다.3라운드 공동선두로 올라서 최종라운드를 맞이한 김시우는 4번 홀(파3)에서 첫 버디를 신고한 뒤 5번 홀(파4)에서 연속 버디에 성공했다.상승세는 계속됐다. 7번 홀(파4)에선 백스핀으로 홀 컵 옆에 공을 붙여 버디를 낚았고, 8번 홀(파5)에서도 버디에 성공하며 전반에만 4타를 줄였다. 그러나 캔틀레이의 추격도 만만치 않았다. 전반에만 버디 6개로 6타를 줄였다.후반에는 오히려 김시우가 1타 차로 쫓겼다. 김시우가 13번 홀(파3)을 마쳤을 때 캔틀레이가 경기를 마쳤는데 22언더파로 김시우에게 1타 차 앞섰다.그러나 김시우는 당황하지 않았다. 본인의 페이스를 유지해갔다. 그리고 터닝포인트를 16번 홀(파5)에서 잡았다. 안정된 샷과 퍼트로 손쉽게 한 타를 줄이며 공동선두에 올라섰다. 이어 17번 홀(파3)에서 승부수를 던졌다. 티샷을 핀 하이에 붙인 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라이에 공을 정확하게 태워 5m짜리 짜릿한 버디 퍼트를 성공시키며 단독선두로 치고 나갔다. 이후 주먹을 불끈쥐는 세리머니를 펼쳤다.김시우는 한 타차 선두로 돌입한 마지막 18번 홀(파4)에서 안정적으로 우드 티샷을 이어갔다. 캐리 250야드가 날아갔다. 그 사이 캔틀레이는 김시우의 보기로 연장 가능성을 대비해 연습장에서 샷과 퍼트를 가다듬었다. 그러나 김시우는 연장을 허용하지 않았다. 두 번째 샷을 정확하게 프린지에 맞춰 온그린시켰고, 버디 퍼트에 실패했지만 침착하게 파로 마무리해 우승을 거머쥐었다.경기가 끝난 뒤 김시우는 현장 인터뷰에서 "캔틀레이가 마지막 홀 버디하는 것을 보고 공격적으로 나가지 않았다. 침착하게 페이스를 유지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년간 매 시즌 2~3차례 우승 기회가 왔었는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해 아쉬웠다. 이번 대호 우승은 나에게 큰 의미를 준다"고 덧붙였다.

전순희/기자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보약같은 쉼표하나

경북농촌체험휴양마을

답답하고 스트레스로 지친 일상,
주말에는 도시를 벗어나 푸른 자연과
향수 어린 농사 체험 및 문화체험은 어떠신가요?
푸르른 강과 수려한 산들이 상쾌함을 더하고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몸과 마음의 보약같은
쉼표하나, 경북농촌체험휴양마을을 만나보세요.